방과후아동지도연구
Korean Journal of After-School Child Education
2016. Vol. 13, No. 1, 1-23.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향상을 위한 미술치료 사례연구

서 혜 전*　　이 미 애**

〈요 약〉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에 다니고 있는 다문화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술치료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 다문화 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에 어떠한지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하였다. 대상아동의 선정은 지역적으로 다문화 가정 아동이 밀집되어 있는 S구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 중 다문화 아동 4명을 선정하여 주 1회 총 24회기 진행하였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미술치료를 적용해 본 결과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검사에서 사전검사보다 치료 후의 사후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K-HTP 그림검사 분석에서도 사전. 사후 분석 결과 인물의 크기, 선의 사용, 상징에서 변화들을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통해 집단미술치료가 지역아동센터 이용 다문화 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지역아동센터, 다문화, 자아존중감, 사회성, 미술치료

· 논문접수: 2016. 04. 23 / 수정본접수: 2016. 06. 23 / 게재승인: 2016. 07. 28
* 대구한의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부교수, 제1저자
**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 교신저자(yma1322@hanmail.net)

I. 서 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경제성장과 산업화는 국제교류의 기회로 이어지는 긍정적 영향 뿐 만 아니라 국가 간 경제 수준의 양극화가 확대되는 부정적 영향도 가져왔다. 이로 인해 저개발국가에서는 일자리를 찾아 타국으로의 이동이 확산되고 있고, 삶의 질이 높은 개발국가에서는 육체적 노동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으로 인해 많은 젊은 노동력이 필요하지만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인구의 감소로, 부족해진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이민자들의 유입을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는 노동기피현상은 노동이민자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국내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 남녀 고용평등의 제도적 확대, 도시문화의 익숙함 등은 여성들의 결혼가치관의 변화로 이어져 문화적 환경이 다른 외국여성들과 혼인하는 국제결혼의 증가를 더욱 가속화 시켜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도 단일문화가족이 아니라 '다문화 가족', '다문화 가정'으로 가족 형태가 변화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단일문화사회라고 할 수 없게 되었다.

통계청(2014)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결혼 이민자는 1990년에 1.2%에 불과하던 것이 2007년 12.2%(87,964명)로 증가하였으며, 2009년 125,673명, 2011년 141,654명, 2014년 149,76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안전행정부(2015)의 보고서 자료에도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수가 2007년 44,258명에 불과하던 것이 2009년에는 107,698명, 2011년에는 151,154명, 2014년 204,204명, 2015년에는 207,693명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수가 2007년 14,654명이던 것이 2012년 46,954명, 2013년 55,780명, 2014년 67,806명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4년 다문화가정 아동의 재학 실태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48,297명으로 71.2%이고, 중학생이 12.525명으로 18.5%, 고등학생이 6,984명으로 10.3%를 차지해, 초등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은 실정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5).

이와 같이 한국사회는 이미 다문화 국가로 진입하였으나, 단일문화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인 우리사회에서 이민자들에 대한 냉대와 멸시, 외국인에 대한 선입견과 사회적 편견은 이민자들이 우리사회에 수용되는 것을 어렵게 하였고,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동들 또한 성장하는 과정에서 한국인과 다른 외모로 인한 따돌림, 이중 언어 사용으로 인한 언어소통의 어려움, 혼혈아라는 차별, 이중 문화에서 오는 정체감 혼란(박수정, 2009)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언어 지체와 문화 부적응으로 인해 낮은 학업성취도와 학교부적응을 보이는 경우가(신혜성, 2007) 많다. 이시기에 겪게 되는 심리, 정서 문제에 대한 지지가 부모로부터

이루어져야하는데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경우 경제적으로 취약한 경우가 많아 부모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기가 어려우며, 특히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대부분 취약계층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 정서문제로 인한 심리적인 상처를 받게 되면서 소극적인 태도와 심리적인 위축 행동을 보인다. 이러한 원인으로 말미암아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지 못한 채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질 수 있으며(이현주, 2011), 자신감의 결여로 사회적 상호작용에도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경향을 보이게 되면서 또래아동에 비해 사회적 소외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결과로 낮은 사회성 발달을 보이게 된다(서정희, 2009). 낮은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은 또래관계 적응 및 학교적응에도 문제를 초래하게 되므로 아동의 긍정적 발달과 원활한 사회적응을 위해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왜냐하면,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갖는 자기 자신에 대해 갖는 가치 판단으로써 인간의 행동과 사회적 적응과 바람직한 성격 형성에 가장 중요한 요소(Rogers,1951, 배홍숙, 2014 재인용)이며, 자기 자신에 대한 수용과 자신에 대한 인정으로 사회적 적응과 관계가 깊은 아동기의 중심발달과제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을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적절하게 대처하여 원만하게 문제해결 할 수 있는 반면(배홍숙, 2014)에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의 경우 열등감을 가지게 되어 학교적응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중퇴를 하거나 사회적 부적응으로 연결될 수도 있게 된다(남정순, 2014).

그리고 사회성은 개인이 태어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집단생활에 적응하여 또래관계 대인관계를 통하여 사회적 환경에 적응해 가는 과정(김현영, 2015), 혹은 한 개인이 타인과 더불어 공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태어난 사회에서 생활하며 습득하고 배우게 되는 가치, 신념, 태도(주희연, 2012)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성은 한 개인이 태어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 습득하게 되는 가치, 신념, 태도 등으로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능력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성의 개념을 바탕으로 볼 때, 다문화 가정 아동은 이중문화로 인한 가족 내에서의 혼란과 갈등이 존재하고 있으며, 외적으로도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서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황매향, 하혜숙, 강지현, 여태철, 2014). 그리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의 대부분은 학교 스트레스를 가지게 되며, 그 중 또래친구에게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클 수밖에 없다(남정순, 2014)는 연구에서와 같이 이들에게 있어 학교적응은 매우 어려운 문제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부모 및 또래와의 관계에서 상호작용을 통한 적절한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사회적 편견과 배제의 대상인 상태로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학교적응이라는

과업에 내몰리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배우는 장으로서의 학교생활의 적응이 나아가 사회적 적응 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학교적응이야말로 이들에게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술을 습득하고 배울 수 있는 중요한 환경이며, 자기수용과 인간관계의 허용을 경험하는 척도(박수정, 최연실, 2009)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교육과학기술부(2015)에서 발표한 다문화 학생교육지원계획에 의하면 다문화 학생의 학업 중단율도 2013년도 461명이던 것이 2014년 57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다문화 가정의 아동 중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초등학교의 경우가 2013년 461명 중 278명, 2014년 571명 중 328명으로 57.4%로 중고생에 비하면 월등하게 높은 편이고, 일반아동의 중퇴율이 1.1%인 것을 볼 때,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 할 수 있다(남정순, 2014). 또한 학령기 다문화 가정 아동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중 다수는 국제결혼자 중 여성이민자와 한국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다.

경제적으로 빈곤한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부모로부터 정서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고, 학교생활과 또래관계에 있어서도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받기 어렵다. 이러한 아동의 경우 지역아동센터에서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여 아동의 성장을 위해 지원해주고 있으나,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주로 학과공부를 위한 학습지도에 치중되어있으며, 아동의 심리적 지원을 위한 서비스는 부족한 실정(김효지, 2010, 이현주, 2011)이므로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그리고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 진행되는 아동상담 프로그램이 아동의 자아존중감, 사회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기는 하나, 주로 언어상담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낮은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으로 위축되어 있는 지역아동센터 다문화 가정 아동의 경우 자신의 생각이나, 욕구, 감정들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데 미숙하거나 강한 저항을 보이게 되므로(송유진, 2008), 언어적 상담은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비언어적 기법의 하나인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미술치료는 미술매체를 매개로 하여 심신의 어려움을 겪는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키우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전수경, 2009), 아동에게 있어 집단미술치료는 집단구성원 상호간의 교류를 통해 자신의 가치와 삶이 의미를 지각하게 됨으로써 자아존중감을 향상할 수 있고(조용태, 이근매, 이도균, 2004), 이들 간의 피드백을 통해 사회적 기술발달을 촉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최선남, 2007).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집단미술치료는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조용태, 이근매, 이도균, 2004), 결손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기여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송희정, 김희정, 김선현, 2007, 박수정, 최연실, 2009, 조영숙, 2012).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향상과(이현주 2011), 국제결

혼가정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향상에도 효과적이라(오가영, 이숙, 2009)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 다문화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미술치료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미술치료 회기별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미술치료가 자아존중감 향상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첫째, 미술치료가 지역아동센터 이용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둘째, 미술치료가 지역아동센터 이용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에 미술치료가 다문화 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대구시 D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다문화 아동 중 선별하여 4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2015년 8월 10부터 1월 24일까지 총 22회기를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8시 까지 60분간 심리상담실에서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연구도구

1) 자아존중감 검사(Self-Esteem)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1965)가 개발하고 전병제(1974)가 번안한 것으로, 이영자(1995), 정현임(2006), 박명숙(2010)이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검사지이다. 자아존중감 검사는 개인의 자아존중감, 즉 자기 존중 정도와 자아승인 양상을 측정하는 검사이다. 이 척도는 개인이 지각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아

〈표 1〉 연구대상 아동의 일반적 특성

대상	일반적 특성
A아동	부(아동이 3세 때, 사망)는 중국에서 일을 하다 돌아 가셨으며, 모(32세)는 캄보디아에서 왔으며 현재 공장에 다니고 있다. 할머니(62세)와 사촌형(14세, 남)이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A아동(8세 남)는 산만한 편으로 활동적이고 집중을 잘 하지 않고 호기심이 많다. 자주 아프고 잔병치레가 많은 편이며 활동적인 성향으로 또래관계에 다툼이 많은 편이다.
B아동	모(33세)는 캄보디아에서 왔으며 공장에 다니고 있으며, 현재 부(38세)와는 재혼하여 임신 중이었으며, 프로그램 중 동생(남)이 출생하였다. 재혼한 부(38세)는 B에게 자상한 편이며, 목욕탕 관리인으로 근무 중이다. 모는 화를 잘 내는 편으로 B아동(8세, 여)은 모가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데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동생(1세, 남)이 태어나게 되면 아동의 성씨가 바뀌어야하며, 동생이 태어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변할까봐 걱정을 한다.
C아동	모(35세)는 베트남에서 왔으며 현재 자녀가 4명으로 주부이며 시간제 일자리가 있을 경우 일을 한다. 모는 한국어를 하기는 하나 능숙하지는 않으며, 부(40세)가 폭력적이고 화를 잘내는 편으로 부와는 대화를 잘 하지 않으며, 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한다. C아동(13세, 여)은 1남 3녀 첫째로 동생들이 많아 모가 일을 하러 갈 경우 동생들을 모두 돌봐야 하는 부담감으로 힘들어 하며 자유롭고 싶어 하며, 동생들이 빨리 자라고 더 이상 모자 동생을 낳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C아동은 에너지가 낮으며 힘이 없이 통제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D아동	C아동(10세, 여)은 C아동과 자매 지간으로 1남 3녀 중 둘째로 욕심이 많고 애정에 대한 욕구가 많은 편이다. D아동은 활동적이며 끼가 많은 아동으로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감정 통제가 잘 안되는 편이다. 음식에 대한 욕심도 많고 눈속임과 애정에 대한 갈구 등 원하는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존중감 5문항으로 모두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식 척도로써 긍정적 문항에 대한 응답은 '대체로 그렇지 않다', '항상 그렇다'로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부정적 문항 3, 5, 8, 9, 10에 대한 응답도 마찬가지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 '항상 그렇다'로 4점 척도로 하지만, 채점할 때는 역 채점으로 처리한다. 점수 범위는 10점에서 4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사회성 검사

사회성 척도는 김종두(2010)가 개발하고 김현영(2015)이 사용한 검사지로 초등학생 사회성 검사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사회성 관련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초등학생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분석한 결과로 개발된 사회성 척도이다.

이 척도는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영역으로는 대인관계, 협력성, 사회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Liker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16번째는 역 문항으로 채점할 때 반대로 처리한다. 점수범위는 17점에서 8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성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정 아동의 미술치료가 아동이 자아존중감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미술치료가 지역아동센터 다문화 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대상 아동의 사전, 사후 자아존중감 검사를 실시하여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미술치료가 지역아동센터 다문화 가정 아동의 사회성을 향상시키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대상 아동의 사전, 사후 사회성 검사 척도를 실시하여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전, 사후 K-HTP를 실시한 후 아동의 심리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4. 미술치료 프로그램 구성 및 활동

미술치료프로그램은 아동의 연령의 차이 및 능력의 차이에 적절하게 주제의 제시와 프로그램의 활동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먼저하고, 작업하기를 실시하였으며, 작품 완성 후 발표하고 이야기 나누기 시간을 가졌다.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자기에 대한 인식과 자기표출을 통해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인에 대한 이해와 환경에 대한 인식 등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긍정적 사회성을 개발하는 것에 역점을 두었다.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표 2>와 같다.

〈표 2〉 회기별 미술치료 활동 과정(24회기)

회기	주제	기대효과
사전검사		K-HTP, 자아존중감 검사, 사회성 검사
1회기	이름꾸며 표현하기	자기표현을 통한 자기 이해 및 라포형성
2회기	목걸이 만들기	자기표현을 통한 자아개념 인식 및 라포형성
3회기	종이동물	자아개념 인식 및 자기표출을 통한 라포형성
4회기	점토만들기	심리적 이완 및 스트레스 해소, 라포형성
5회기	자유화	심리적 이완. 자기 내면 감정 이해 및 욕구발산

〈표 2〉 회기별 미술치료 활동 과정(24회기) (계속)

회기	주제	기대효과
6회기	자유화	심리정서적 이완, 자기 내면이해 및 욕구발산
7회기	추석하면 생각나는 것	가족에 대한 인식 및 긍정적 감정 회복, 관계증진
8회기	개구리 알	심리적 이완 및 자아존중감 향상
9회기	풍경화	자아개념 인식 및 현실지각, 사회성 증진
10회기	비오는 날	스트레스에 대처 능력 및 아동의 내면 이해
11회기	난화그리기	심리적이완 및 긴장완화, 내면 표출 및 자기탐색
12회기	움직이는 고양이	자기만족감 및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증진
13회기	요술나무	자기인식 및 자아존중감 향상, 상호작용 증진
14회기	자유화	심리정서적 이완 및 사회성 증진
15회기	내가 하고 싶은 것	자기탐색 및 자아존중감 향상, 사회성 증진
16회기	내가 받고 싶은 선물	자기탐색 및 자아존중감 향상, 사회성 증진
17회기	카드만들기	자기탐색 및 자아존중감 향상, 사회성 증진
18회기	연필깍기	자기표현 및 자아존중감 향상
19회기	튜브벨	심리적 이완 및 협동놀이을 통한 사회성 증진
20회기	머리핀만들기	자아존중감 및 관계 형성, 사회성 증진
21회기	손수건 염색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 향상 및 사회성 증진
22회기	메모꽂이	자기표현능력 향상, 대인관계향상, 사회성 증진
사후검사		K-HTP, 자아존중감 검사, 사회성 검사,

Ⅲ. 연구결과

1. 미술치료가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정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미술치료가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정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실시 전, 후 자아존중감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지역아동센터 다문화 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A아동의 사전점수는 21점에서 사후점수는 29점으로 나타났으며, B아동의 사전 점수는 25점에서 사후 점수는 32점이며, C아동의 사전점수는 28점에서 사후 점수 33점, D아동의 사전 점수 23

점에서 사후 점수 36점으로 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정 아동의 집단미술치료를 실시한 후 실시하기 전보다 5~13점 증가 하였다. 이는 미술치료가 지역아동센터 이용 다문화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 자아존중감 척도 검사 사전 사후 점수 비교

		사전검사	사후검사
자아존중감	A아동	21	29
	B아동	25	32
	C아동	28	33
	D아동	23	36

2. 미술치료가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미술치료가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정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실시 전, 후 사회성 척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지역아동센터 다문화 가정 아동의 사회성은 A아동의 사전 점수는 46점에서 사후점수는 51점으로 나타났으며, B아동의 사전 점수는 49점에서 사후 점수는 52점이며, C아동의 사전점수는 50점에서 사후 점수 51점, D아동의 사전 점수 40점에서 사후 점수 57점으로 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정 아동의 미술치료를 실시한 후 실시하기 전보다 1~17점 증가 하였다. 이는 미술치료가 지역아동센터 이용 다문화 아동의 사회성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 사회성 척도 검사 사전 사후 점수 비교

		사전검사	사후검사
사회성	A아동	46	51
	B아동	49	52
	C아동	50	51
	D아동	40	57

3. 미술치료가 지역아동센터 다문화 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K-HTP는 그리는 사람의 내면이 표현되는 것으로 아동의 정서와 자아 및 대인관계에 대

해 이해 할 수 있으며, 집-나무-사람 그림에서 표현되지 않는 상호작용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K-HTP를 사전, 사후 검사를 비교분석하여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한다.

K-HTP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아동의 K-HTP 사전검사에서는 아동이 집에서 계단을 내려와서 있는 것이며, 밑에 있는 아이의 경우 성이 다른 자신과 같은 이름을 가진 친구이며, 나무는 32살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물을 준다고 한다. 전체적인 그림의 구도는 적절한 수준으로 보여지나, 8살의 아동의 그림발달로 볼 때 다소 미흡한 표현능력을 보이고 있으며, 선의 사용에 거침이 없으며, 집 그림에서 창문이 많이 그려져 있고, 계단은 문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 창문과 연결되어진 것으로 아동은 상호작용에 대한 욕구는 있으나 상호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고 갈등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람그림에서도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회피 및 방어적인 성향이 보여지며, 타인을 많이 의식하는 아동으로 성격이 예민하고 민감한 상황을 표현하였으나, 사후 그림에서는 전체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자기통제가 되어 지면서, 환경에 적절하게 관계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아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타인을 많이 의식하고 예민하게 대응하기는 하나 관계에 대한 욕구가 강해진 것으로 보아 사회성이 좋아 진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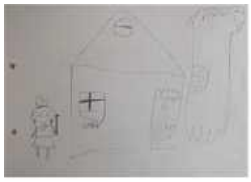
B아동의 경우 처음 관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하고 어색해 하며, 그림검사에 대해 방어적이며 그림검사에 대해 설명해 주었으나, 많이 망설이며 관계에 대해 어색해하고 힘들어하였다. B아동의 K-HTP는 아빠가 배를 따고 있으며, 자신은 아빠를 보고 있는 것이며, 나무는 배나무로 10살이며 건강하고 잘 자랄 것 같다고 하였다. 집 그림이 현실세계에서 집이라기보다는 동화 속의 성과 같아 보이며 아빠가 배를 따고 있는 모습을 창문 안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그림으로 보아 아동은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욕구는 있으나 경계가 있으며 환상적이고 공상적인 성향으로 현실지각능력이 다소 부족 할 수 있고, 환경에 적절하게 적응하는 능력이 미흡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보이며 심리적인 상처가 있을 가능성이 보여졌으나, 사후 그림에서는 선이나 필압에 자신감이 있고 관심 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표현되었으며, 안정에 대한 욕구가 보여 지는 것으로 보아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이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C아동의 경우 사전검사에서 자신이 사다리를 타고 사과를 따고 있는 모습을 그렸으며, 가족이 사는 집이며 행복한 것 같다고 말하면서 힘없는 표현을 하였으며, 나무는 사과나무이며 18살로 건강한 나무라고 하였다. C아동의 경우 성장에 대한 욕구가 있으며 욕심은 있으나, 자아존중감이 낮은 편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선택에 대해 다소 주저함이 있다. 그리고 자기 개방을 잘하지 않으며 여성적이며 민감한 성향을 보여주었으나,. 사후검사에서는 전체적으로 필압이 약하고 여러 선들이 그려졌는데, 이

는 심리적인 갈등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하여 현실을 회피하고자하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 자신을 방어하고 피하고자하는 성향을 보여 지며 안정에 대한 욕구가 보여 졌는데, 이는 현재 자신의 상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심리적인 갈등과 불안이 표현된 것으로 보여진다.

D아동의 K-HTP는 본인이 계단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이며, 동생은 거실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그렸으며, 나무는 귀여운 나무로 열 살이며, 건강하고 잘 자랄 것 같다고 한다. 그리고 집 계단은 자신을 안전하게 해주는 것이고, 주방에 있는 계단은 자신을 안 다치게 하는 계단이라고 하며, 많은 산을 그렸다. 이로 보아 아동은 자기를 드러내고자하는 욕구가 강하며, 다소 불안한 심리가 보여 졌으며, 보호에 대한 욕구가 있었다. 그리고 성장에 대한 요구와 애정에 대한 욕구가 보여 졌으나, 사후그림에서는 선의 사용에 자신감이 있으며 자기감정 및 자기요구에 대한 표현이 보여 지고 타인과 관계 하고자하는 욕구가 강하며, 자아존중감이 강한 것으로 보여진다.

〈표 5〉 K-HTP 그림 검사 사전 사후 비교분석

대상	K-HTP 사전	K-HTP 사후
A아동		
B아동		
C아동		
D아동		

4. 프로그램 회기별 진행과정

본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의 변화과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미술치료를 22회기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회기별 활동사진은 <표 6>과 같고, 미술치료 활동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1회기에는 자기표현을 통해 자기를 이해하고, 아동과의 라포형성을 하기 위한 이름을 꾸며 자기표현하기를 하였다. 4명의 아동들은 모두 이름을 먼저 적고 난 후에 꾸며주기를 하였으며, A아동은 이름을 적어 디자인을 하고 주변을 꾸며주었고, 매직을 사용해서 채색을 하며 여러 가지 색의 사용을 즐겼으며, 거대한 나뭇잎을 그렸으며 나무 산에 올라간다고 하였다. 산만함을 보이며, 강한 필압과 흔들리는 선의 사용을 하면서 자기에 대한 표현에 주저함이 있어 보였다.

B아동은 자기 이름을 적어서 표현하고 표현에 망설임이 많았으며, 주제에 대해 생각하고 표현하는 것에 주저함이 많으며 어려워하였다. 또한 자기표현에 대한 욕구는 있으나 표현력이 부족했으며, 심리적인 위축이 있어 라포 형성을 위한 작업이었으나 방어적이여서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였다.

C아동은 엄마가 화를 잘 내시는 편이지만 오늘은 엄마 생신이여서 기분을 상하게 하면 안되니깐 화나지 않게 조심해야겠다고 하면서 POP로 꾸며주었으며 ,자기개방을 잘하지 않고 조용하며 에너지가 낮은 편으로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표현은 하지만 자기 생각을 표현하거나 다가가는 것에는 방어적이었으나, 미술표현에 있어서는 자기생각을 확실하게 하는 편이고, 동생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표현하였다.

D아동은 엄마생일이지만 생일선물을 사고 싶지 않다면서, 엄마가 자신을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이름을 그려주고 하트로 화지를 꾸며 주고 하트와 색의 사용을 많이 하였다. 이는 아동이 사랑과 애정에 대한 강한 욕구와 자기 인정에 대한 요구라고 할 수 있다.

2~3회기에는 자기표현을 통한 자아개념 인식 및 자기표출을 통한 라포 형성을 위한 만들기를 하였다. 아동의 경우 그림에 대해 방어적이고 주제에 맞게 작업하는 것에 대한 방어가 있으나, 연령과 상관없이 만들기에 대한 부담이 적으며, 만들기 작업에 대한 흥미와 작품의 완성에 대한 자기 만족도가 높은 편이므로 2회기에는 원목 목걸이 만들기를 완성한 후 아동들은 목걸이를 곧 바로 목에 걸었으며, 자신의 목걸이에 대해 자랑하고자 하였다. 원재료는 같았으나 표현방식은 달랐으며, 완성된 작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짐에 따라 작품 대한 표현이 많아지면서 라포형성에 도움이 되었다.

4회기에는 점토로 심리적인 이완 및 스트레스 해소를 통한 라포 형성을 위한 점토로 만들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는데, 점토의 재질과 촉감을 통해 에너지가 높거나 저학년 아동은 심리적으로 이완이 되었으나, C아동의 경우 심리적 이완을 잘하지 못하고 통

제되어 있어 감정 표현이 원활하지 못하였으며, 여름방학이 지나고 개학을 하게 되어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온 상황이라 감정이 고조되어 있어서 인지 쉽게 감정이 정리되지 못하였다. A아동은 점토를 한참을 만지작거리며 점토의 촉감을 즐기고 나서야 최대한 커다란 칼을 만들어주었으며, 칼이 빨리 말라서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A아동의 경우 재료의 활용이나 사용에서 조직적이지 못하였으며, 강해지고 싶은 욕구와 자기표현에 대한 욕구를 표출하기도 하였다.

B아동은 개학 후 친구들을 만나서 기분은 좋았지만 남자 짝꿍이 괴롭혀서 속상하다고 했으며, 친구가 자꾸 괴롭혀서 때려주었다고 하였다. B아동은 점토를 만지면서 촉감을 즐겼으며, 무엇을 만들지 한참을 망설이다가 나비를 만들어 주었고, 나비는 조개나비라고 하였으며 점토놀이를 통하여 심리적으로 많이 이완되는 듯이 보였다.

C아동은 개학해서 친구들을 만나 기분이 좋았으나, 짝꿍이 없이 혼자 앉게 되어 많이 외롭다고 하면서 한 달이 빨리 지나 자리를 교체하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점토로 벽돌을 쌓아 첨성대를 만들었는데, 첨성대를 만들기에 시간이 부족하였으며, 만들어진 첨성대가 답답해 보였다. 자기감정표출을 하지 못하고 틀 속에서 갇혀진 듯이 보여 지며 현재의 동생들로 인해서 자유롭지 못한 자신의 상황을 표현하는 듯하였다.

D아동은 예전 짝꿍은 자신을 괴롭혔었는데, 새로 바뀐 짝꿍은 자기를 괴롭히지 않아서 개학이 너무 기분이 좋다고 하였다. 그리고 점토를 한참을 가지고 즐기다가 잠자리를 만들었으며, 점토만들기를 즐거워하며 재료의 사용에 욕심을 내기도 한다. 재료를 마음껏 써도 된다고 해도 눈치를 살피며 친구들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부리기도 한다.

5~6회기에는 심리적 이완을 통한 아동의 내면을 이해하고 아동의 욕구발산을 위한 자유화로 구성하였다. A는 아빠가 돌아가셔서 형이랑 할머니랑 살고 있는데 할머니는 형한테는 안 그런데 자기에게만 빵을 사준다면서 왜 그런지 알 수가 없다고 말하였으며 자신의 꿈속을 그렸는데, 꿈속에서 엄마와 자다가 혼자 숲에 갔던 모습이며, 멀리서 형을 찾아가는 모습을 그렸다고 한다. 자유화에서 아동은 자기감정과 생각을 표현한 것으로 보여 지는데, 형과 가까워지고 놀고 싶은 욕구가 있기는 하지만 형하고 함께 놀 때 힘든 상황으로 인해 꿈속 그림에서 양가감정이 표현된 것으로 보여 진다.

B아동은 말하는 것과 예쁜 것을 좋아하는데 가족들이 성에서 산책하는 모습을 그렸는데 림을 그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으며, 채색하는 것을 무척 싫어하였으며, 채색을 할 경우 시간 안에 완성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았다. 그것은 무엇을 그릴지 생각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릴 때도 주변을 살펴가며 집중을 잘하지 못하여서 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 그림에서 아동은 가족관계에 대해 표현하였으며, 자신과 엄마를 동일시하면서 엄마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과 화를 내거나 소리를 칠 때의 부정적인 감정을 둘 다 표현하였다.

C아동은 동생들을 돌보지 않을 때가 가장 행복하며, 동생이 너무 많아 힘들다고 하였으며, 비 오는 날 풍경을 그렸다. 비가 와서 집에 못가서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는 모습이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나갈 수 가 없어서 앉아서 밖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였는데 이로보아 아동이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이며,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은 소극적이며 이를 극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보였다.

D아동은 동생 때문에 혼나서 기분이 안 좋으며, 그것 때문에 배가 더 많이 고프다고 말하면서, 비가 내리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였고, 비가 와서 기분이 좋지 않으며, 낙엽도 떨어지고 낙엽 속에 죽은 사람도 있다고 말하였다. 이것으로 볼 때 아동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를 배고픔으로 인식하고 이로 인해 과식을 하기도 하며,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이 많이 부족해 보였다.

7회기에는 가족에 대한 인식 및 긍정적 감정회복 및 관계 증진을 위해 추석하면 생각하는 것을 그리도록 하였다. A아동의 경우 아빠가 돌아가셔서 추석이면 제사를 지내는데, 3살 때 아빠가 돌아가셨으며 아빠가 보고 싶다고 하였으며, 아빠가 있으면 돈도 벌고 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추석이 되면 제사를 지내고 형들과 노는 것은 재미있기는 하지만 자신을 많이 놀려서 짜증이 나기도 한다면서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면서 심리적인 위축이 보이기도 하였다.

B아동의 경우 아빠가 쉬는 날 이여서 아빠를 만나러 빨리 가고 싶다면서 아빠는 자기와 놀아주기 때문에 좋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추석에 대해 그리는 것을 무척 어려워하였는데, 이는 추석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이여서 그리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보여 지며, 추석에 대해서보다는 그냥 했던 일을 그린다면서 가족들이 각자의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었다. 이것으로 보아 아동은 추석과 연관된 가족과의 관계에 갈등 및 스트레스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C아동의 경우 추석에는 모두 울산에 가는데 울산에는 가족이 많이 복잡하고, 추석이 되면 집이 복잡해진다면서 집이 좀 더 컸으면 좋겠다고 하였고, 동생은 춤을 잘 추어서 울산에서 춤을 추면 이모나 고모한테 용돈을 받는데 자신은 그냥 옆에서 용돈을 받는다면서 옆에서 용돈을 받는 모습을 그렸다. 이로보아 추석이 되면 동생의 경우 친척들에게 관심을 받는데 비해 자신은 드러나는 것이 없어 다소 위축되는 것을 보여 진다.

D아동의 경우 추석에는 용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추석이 다가와서 기분이 좋아 진다고하면서 추석에 놀러 갔다면서 친척집에서 동생이랑 놀고 있는 모습을 그렸으며, 자신은 노래와 춤을 잘 추어서 고모랑 이모가 모두 용돈을 주어서 기분이 좋다고 한다. 그래서 주제가 자신의 장기를 발휘할 수 있으며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 이여서 기분 좋게 활동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고 자신을 과시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 진 추석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였다.

8회기에는 심리적 이완 및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개구리 알 꾸미기를 하였는데, 개구리 알이 물속에서 자라서 점점 커지는 것을 보면서 심리적인 이완이 되었으며, 개구리 알들이 예쁜 어항에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 어항을 꾸며주었다. A는 변화에 관심을 가졌으나, 꾸며 놓은 어항은 어수선하고 정돈되지 않았으며, 자기표현이 다소 서툴렀다. 그리고 B는 예전에 해본 경험이 있어서 신나하며 관심을 가졌으며,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에 관심을 가지며 단순하게 표현하는 것을 즐기는 것으로 보였다.

C는 알의 변화를 보고 흥미로워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다 드러내지 않고, 자기 욕구와 감정을 통제 하며 심리적인 위축을 보였으며, D는 개구리 알을 많이 넣어서 욕심을 부리며 충분히 욕구를 충족하고 나서야 투명 컵을 꾸며주었다. 꾸미기를 할 때는 차분하게 작업을 하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하고 나서야 시작을 한다. 이는 애정에 대한 욕구와 관심에 대한 욕구가 많아서인 것으로 보여 지며, 형제가 많아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속상함도 늘상 표현하는 아동이다.

9회기에는 자아개념 인식 및 현실지각을 통한 사회성 증진을 위한 풍경화를 그리도록 하였다. A아동은 사람, 나무, 새, 나비, 꽃을 그려주고, 나무그림에 가지의 연결이 잘 안보이며, 그림의 연결이 부족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생각과 행동이 상하며, 자기 생각에 대한 표현 및 자기감정 이해가 부족해 보인다.

B아동은 자신과 엄마를 예쁘게 그려주며 그림을 그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며 주제와 상관없이 예쁘게 그리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아동이 현실지각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C아동은 학교에서 자리 바꾸기를 했는데, 떠드는 두 명의 아이들이 선생이 가까이로 자리를 바꾸어서 자신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싫다면서, 빨리 한 달이 가서 자리 바꾸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즐겁게 보내면 시간이 더 잘 가겠죠” 라며 스스로를 위안하였다. 그리고 나무 집 꽃들을 그린 후 뒤늦게 사람을 그려주었으며, 창문이 가지런하며 나무뿌리가 갈퀴처럼 이루고 있는 것을 그리면서 집과 나무그림 풍경을 그리면서, 자기 내면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자신의 내면이 보이는 것을 거부하며 방어하는 것으로 보인다. D아동은 꿈속에서 사람을 죽이는 꿈을 꾸었다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만들어서 하며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요구하였다.

10회기에는 아동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 및 아동의 내면을 이해하기 위한 비 오는 날을 그리도록 하였다. A아동은 비 오는데 학교에 혼자 가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며, 도로와 집을 검은색으로 표현했는데, 이는 아동은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자기감정 표현이 서툴러 심적 스트레스가 많아 보이며 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B아동은 비 오는 날 자기와 엄마와 우산을 쓰고 가고 있는 표현하였으며, 비 오는 날에

대해 그리는 것을 어려워하고 채색을 가장 힘들어 했으며,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스트레스가 많으며, 이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였다.

C아동은 학교에 가다가 웅덩이에 빠진 모습이라면서 집과 우산을 든 자신을 그렸으며, 아동은 스트레스가 많으며 이를 피하고자하는 생각은 있으나 스트레스 상황에 많이 노출되어있어 이를 스스로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보였다.

D아동은 비 오는 날에 우산을 쓰지 않고 있는 것을 표현하였는데, 비가 조금만 내리고 있는 모습이며 비를 먼저 표현하고 우산 쓴 모습을 그려주면서, 우산은 비를 피할 수 있다면서 주변을 하트로 표현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아동이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데 소극적이며 대처하는 방법을 몰라 피하고자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11회기에는 심리적 이완 및 긴장완화를 위한 난화그리기를 통해 자기내면을 표출하고 자기 탐색을 할 수 있다.

A아동, B아동의 경우 낙서하기를 힘들어하며 심리적인 이완과 자율적이지 못하고, C아동의 경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낙서와 찾을 그림을 미리 생각하며 그렸으며, D아동의 경우 낙서를 즐기며 자신만의 방법으로 채색과 찾기를 하며 자기표현이 좋은 편이다.

12회기에는 자기만족감 및 자아존중감을 향상하고 완성 된 작품을 통한 상호작용으로 사회성증진을 위한 움직이는 고양이를 만들어 보았다. 만들기 작품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도 있지만 조작이 가능한 것 이여서 활동하고 조작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하며 즐거움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A아동은 센터에 있는 형에게 까불다가 혼이 났는데 혼나도 형한테 까불면 재미있어서 계속 그렇게 하고 싶다며, 잘 지내고 싶기는 한데 혼나도 까불며 노는 것이 더 재미있다한다. A아동은 색의 표현보다는 자기표현을 들어주고 긍정해 주는 것에 반응하며 욕구를 분출하기를 좋아한다. B아동은 만들기를 시작하기 전에는 별로 흥미를 보이지 않다가, 채색을 하고 꾸미기를 완성 한 후에는 고양이를 조작하면서 대화를 나누며 놀이를 즐겼고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며, 자기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편이었다.

C아동의 경우 옆구리 쪽이 자꾸 아파서 활동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걱정이 많이 된다고 하면서도 동생을 돌볼 수 있도록 동생 것을 만들었다.

D아동의 경우 자기 작품에 대해 만족감을 보이고 자기 효능감을 가지고, 자신이 만든 작품을 자랑하며 놀이를 하는 것을 즐기며 호응해 주기를 요구하였다.

13회기에는 요술나무를 그려 자기인식 및 자기탐색을 통한 자아존중감을 증진 및 나아가 타인에 대한 이해 및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성을 증진할 수 있다.

A아동의 경우 크레파스를 이용하여 그림을 그렸고. 허수아비와 감이 떨어지는 나무이며, 사과와 은행, 도토리가 열리는 나무라고 하였다. A아동은 그림을 그리기 보다는 놀이에 더 관심을 가지며 자기에 대해 인정해 주고 함께 놀아주면서 즐거워지는 것에 관심이 많았다.

B아동의 경우 요술나무라는 것에 잠시 뜻을 이해하지 못해 설명해 주니 금새 밝은 모습으로 소원을 빌면 이루어지는 나무를 그릴 것이며, 어떤 소원도 이루어지는 나무라고 한다.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니 자신은 소원이 없다고 하면서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고. 아동의 경우 자기 감정에 대한 이해가 다소 미흡한 편이고 감정 전달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해 보였다.

C아동의 경우 소원을 들어 주는 나무를 표현하며 현실에 공부를 잘하게 해주는 나무를 그렸다. 공부를 잘하면 취직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고 싶다고 하였다.

D아동이 경우 욕구와 욕심이 많은데 이러한 것들이 열리는 나무를 그려 아동의 욕구를 표현하였다.

14회기에서는 심리정서적 이완 및 사회성 증진을 위한 자유화를 그려보도록 하였다.

A아동은 장난치는 것을 좋아하여 다소 과하고 부적절한 언어사용이 있으며, 관심에 대한 욕구와 사랑과 애정에 대한 욕구를 부정적인 방법으로 충족하고자하는 경향이 보인다. 자동차가 지나가는 것을 그려주고 자신은 횡단보도에 서서 차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있다고 한다. 방어적이고 호기심이 많으며 주변의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B아동은 아빠가 평일 날 쉬는 데 오늘 쉬는 날 이여서 좋다면서 아빠는 매일 일을 해야 해서 너무 힘들 것 같다고 한다. B아동은 스스로 결정하거나 선택하는 자주적인 힘이 약하여 자율적인 주제를 어려워하며, C아동은 4색 무지개 색을 표현하였는데, 검찰청에서 장학금을 받은 감정을 무지개로 표현하였으며, 또한 아픈 것이 빨리 나았으면 하는 바람도 함께 표현된 것으로 보였다.

D아동은 꿈 이야기가 많으며 부정적이며 무서운 이야기들을 하면서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구하지만, 이야기와 다르게 그림에서는 표현이 되지는 않았다.

15회~17회기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을 통해 자기 탐색 및 자아존중감을 향상 하였으며, 나아가 타인에 대한 이해 및 관계 탐색을 통한 사회성 증진을 위한 작업도 하였다. 또한 카드 만들기를 통해 타인에 대한 생각과 탐색을 하게 되었으며, 자신의 선물과 내가 하고 싶은 것 보다는 카드 만들기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에 더 많은 열정을 쏟았다.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선물을 받고 카드를 준다는 것에 많은 즐거움을 표현하였으며, 자신의 생각이 수용되어 지는 것에 만족감을 표현하면서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 지며,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해주는 능력이 향상 된 것으로 보였다.

18회기에 자기표현 및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연필깍기를 아이클레이와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만들기를 하였는데, 아동들은 자기만의 것을 만드는 것을 좋아 하였으며 완성된 작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에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작업에 몰두하였다.

A아동은 아이클레이의 감촉을 많이 즐겼으며, 아이클레이를 직접 붙이면서 완성했으며,

〈표 6〉 회기 별 미술치료 활동 사진

대상	A아동	B아동	C아동	D아동
1 회기				
2 회기				
4 회기				
6 회기				
10 회기				
13 회기				
17 회기				
18 회기				
20 회기				
21 회기				

B아동은 예쁜 것을 꾸밀 수 있다는 데 너무 즐거움을 표현하였으며, 크리스마스가 빨리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함께 표현하였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아빠가 침대를 사준다고 해서 많이 기대된다고 하였다. C아동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나 자신이 잘했던 일을 이야기 하면서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였으며, 자기감정을 수용해 주고 지지해 주는 것에 힘을 얻는 듯했으며,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정성을 들여서 조심성 있게 만들어 주었다.

D아동은 함께 하는 작업보다는 만들기를 해서 자기만의 것을 가질 수 있을 때 가장 만족감을 표현하였으며, 아이클레이를 사용해서 만들어 주었고, 아이클레이로 구슬을 만들어서 연필깍기 통 속에 넣어 주었다.

19회기에는 심리적 이완 및 협동놀이를 통한 사회성 증진을 위한 튜브벨 만들기를 하였는데, 튜브벨은 모양의 선정에서도 서로의 욕구가 다르지만 채색하고 소리에 반응하며 흥미로워하였다. 그리고 만들어진 작품을 소리를 내어 소리를 들어 보면서 이전의 경험과 함께 하여 긍정적인 반응들을 보였다.

B아동의 경우 아빠가 침대를 사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다며 침대에서 자면 공주가 된 것 같고 기분이 너무 좋아 행복하다고 한다. C아동은 지난주에도 동생을 돌본다고 힘들었다며, 동생이 예쁘기는 하지만 빨리 자랐으면 좋겠다고 한다. D아동은 친구들이란 귀신놀이 하다 친구들이 고함쳐서 선생님에게 들켜 혼이나 벌 청소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기분이 안 좋고 속상하다고 한다. 튜브 벨을 완성 후에 소리를 내어보기도 하고 소리가 아름답다며 기분이 매우 좋아 졌다.

20회~22회기에는 자기표현 및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머리핀 만들기, 손수건 염색, 메모꽂이 만들기를 하였으며 만들기 한 작품을 서로 나누거나 선물하기를 통해 상호관계 증진 및 사회성을 향상하기 위한 작품 활동을 하였다.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끝나가는 과정에서 마무리활동을 위한 작업들이서 흥미로워 했으며, 다양한 재료들을 통한 만들기에 서로 도움을 주면서 상호작용을 잘하였다. 욕심이 많던 C도 재료의 다양함과 풍족함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양보가 보였으며, 예쁜 것을 좋아하던 B는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것에 즐거움을 표현하였으며, 늘 배려하고 양보하던 C는 자기표현이 많아 졌으며, 정신없이 산만하던 A도 미술치료활동이 끝나는 것을 많이 아쉬워하였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미술치료가 지역아동센터 이용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치료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자아존중감 검사, 사회성 검사, K-HTP 그림검사의 사전 사후 결과 분석을 하였고, 회기별 아동의 변화를 관찰

하고 분석하여 다음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지역아동센터 다문화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미술치료는 자아존중감 검사 사전 사후 검사를 한 결과 사전보다 높은 사후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K-HTP 그림검사 분석에서도 사전보다 사후 그림에서 자기 표현이 높은 것으로 보아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정 아동의 미술치료는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이러한 연구의 결과 집단미술치료가 결손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송희정・김희정・김선현(2007)의 연구와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확인한 이현주(2011)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으며, 집단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박수정・최연실(2009)의 연구와 국제결혼가정(온누리안) 자녀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오가영・이숙(2009)의 선행연구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다문화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미술치료는 사전 사후 사회성 검사를 한 결과 사전보다 높은 사후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K-HTP 그림검사를 분석에서도 사회성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므로, 미술치료가 사회성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미술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성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조영숙(2012)의 견해와 유사하며,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성에 긍정적인 효과(박수정, 최연실, 2009), 국제결혼가정(온누리안)자녀의 사회성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다(오가영, 이숙, 2009)는 선행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 결과는 미술치료가 지역아동센터 아동이나, 일반적 가정의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선행연구에서 국한되지 않고, 지역아동센터 이용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설정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점과 학령기 다문화가정 아동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들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향상에 활용 가능성을 확인 하였다는 것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대상의 사례수가 적고, 가정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점, 지역아동센터 다문화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효과성을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일반화 할 수 있는 아동의 연령, 성별, 지역에 따른 더 많은 연구의 수행과 가정환경 특성에 따른 세분화된 연구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미술치료의 효과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이 한국남성과 결혼이주여성과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외국노동자 가정이나, 새터민 가정 등 보다 확대된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시도해보는 것이 필요하며, 나아가 다문화가정 부모 미술치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김종두 (2010). 초등학생 사회성 검사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 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6**(6), 161-181.

김현영 (2015).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성 향상을 위한 푸드 아트 테라피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평가. 호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효지 (2010). 집단미술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남정순 (2014). 미술치료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초등학교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양적연구. **한국임상보건과학의 저널, 2**(2), 107-118.

박명숙 (2010).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아동이 지각한 가족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0**(2), 193-218.

박수정, 최연실 (2009).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10**(4), 2521-2538.

배홍숙 (2014). 한부모 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모래놀이치료 사례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손봉희 (2011). K-HTP 그림검사에 나타난 대학 신입생의 자아존중감 반응특성 연구. 경기대학교 미술 디자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신혜성 (2007). 다문화 가정 자녀의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영자 (1995).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역할.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3,** 195-242.

이현주 (2011). 집단미술치료가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미술치료연구, 18**(2), 245-266.

오가영, 이 숙 (2009). 집단미술치료가 국제결혼가정(온누리안) 자녀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 **무역통상학회지, 5**(2), 169-196.

송희정, 김희정, 김선현 (2007). 집단미술치료가 결손가정 아동이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임상미술치료학연구, 2**(2). 109-128.

전병제 (1974). 자아개념 측정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논총, 11**(1), 107-130.

정현임 (2006).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우울과 공격성에 미치는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정보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영숙 (2012). 집단미술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례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14**(1), 291-314.

조용태, 이근매, 이도균 (2004). 구조화된 집단미술치료가 도시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특수아동교육연구, 6**(2), 98-118.

주희연 (2012). **점토미술치료가 학교부적응 아동의 또래관계 및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 한양대학교 이노베이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선남, 전종국, 신 영 (2007). 아동, 청소년상담: 저소득층 아동의 정서적 불안감 감소와 자아존중감향상을 위한 집단미술치료연구. **한국상담학회, 8**(3), 1101-1119.

하미용, 남상권 (2011).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 **한국예술치료학회지, 2,** 219-245

황매향, 하혜숙, 강기현, 여태철 (2014).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성 발달. **한국초등상담교육학회, 13**(1), 71-96.

교육과학기술부 (2015). 2015년 다문화 학생 교육지원 계획 발표, 다문화교육정책보고 안전행정부, (2015), 외국인 주민현황조사 발표

통계청 (2014).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통계정보 발표

Rosenber.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ABSTRACT

A Case Study of Art Therapy for the Self-Esteem and Sociality of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Community Children Centers

Hyejeon Suh · Miae Lee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effect of art treatment programs conducted on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attending community children centers on the self-esteem and sociality of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community children centers. Selection of target children was made from children attending a community children center located in S District where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re densely located and 4 multicultural children were selected and a total of 24 weekly sessions were conducted. After applying art therapy as a program for the enhancement of the self-esteem and sociality of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self-esteem and sociality showed scores that were higher in post-tests than in pre-tests and pre-analysis and post-K-HTP picture analysis showed there were changes in figure sizes, line use, and symbolism and these results show that group art therapy has a positive effect in enhancing the self-esteem and sociality of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who use community children centers.

Key words : community child center, multiple cultures, self-esteem, art therapy

방과후아동지도연구
Korean Journal of After-School Child Education
2016. Vol. 13, No. 1, 25-57.

아동을 위한 사회적 돌봄 서비스 간 협력 방안 연구: 학교 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이 향 란*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가 아동돌봄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시범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제안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와 초등돌봄교실 종사자들 576명을 대상으로 설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의 98.0%가 협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아동 문제를 상의하기 위함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관은 전체의 31.7%였고 긴밀한 협력을 하는 기관은 전체의 11.4%에 불과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사회적 돌봄, 돌봄서비스 , 지역아동센터

· 논문접수: 2016. 04. 25 / 수정본접수: 2016. 06. 27 / 게재승인: 2016. 07. 29
*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부설 한국아동정책연구소 소장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사회적 돌봄 서비스 간 협력방안 연구는 그동안 지역아동센터가 유사한 다른 사회적 아동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이나 기관과의 협력이 매우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공부방이 “한 아동이 성장하는 데에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중요하게 여겨온 전통을 이어받은 것과 더불어, 아동의 생활이 가정과 학교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정이나 학교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즉, 지역아동센터는 공부방 활동시기부터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하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협력이 필수적 요소로 여겨왔다. 그러나 학교와의 협력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 아니었다.

그런데 최근 박근혜 정부는 방임 아동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방과후 시간 동안 사회적 돌봄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방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고, 이를 초등학교의 돌봄서비스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정책을 실시하려고 한다. 그러나 최근 아동에 대한 방과후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이미 사회적 합의가 되어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학교 당국, 초등돌봄교사들의 의견의 중요성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책의 실현과정에서 지역아동센터나 학교는 모두 아동에 대한 사회적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동의하고 있으나, 이러한 서비스를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소의 이견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러한 정책에 대한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이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있는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사)초등학교보육교사연합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지역아동센터와 초등돌봄교실의 건강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향을 찾기 위한 본 연구의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아동센터와 초등돌봄교실의 협력의 실태를 파악한다.

둘째, 지역아동센터와 초등돌봄교실의 협력에 대한 의견을 파악한다.

셋째, 현재의 아동에 대한 사회적 돌봄서비스 정책에 대한 의견을 파악한다.

넷째, 위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아동센터와 초등돌봄 기관 간의 원활한 협력을 위

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 대안을 제시한다.

3. 연구 방법

지역아동센터와 초등돌봄교사의 사회적 돌봄에 대한 인식과 현재의 돌봄 실태를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이 설문양식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3년 5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간의 기간동안 전국의 지역아동센터와 초등돌봄교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지 회수률은 지역아동센터는 89%, 초등돌봄교실은 57%로 나타났다.

응답한 설문지는 SPSS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해 기초통계분석을 실시하여 빈도와 퍼센트, 분포 등을 알아보았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와 초등돌봄교실 교사간의 차이, 협력 유무에 따른 차이, 아동수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고자 통계검증인 T검증과 F검증을 실시하여 집단 간의 평균차이와 표준편차를 알아보았다.

〈표 1〉 설문지의 구성

설문내용	소항목	질문번호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소속, 성, 학력, 전공, 자격, 직위, 근무경력, 보수	일반적 사항
기관실태	운영시간, 아동수, 지역사회 유형	일반적 사항
종사자 근무 현황	종사자의 수, 주요 업무	일반적 사항
협력 실태	타기관 인지도, 협력의 필요성 인식, 협력 유무 협력하지 않는 경우: 이유, 참여의사 기대하는 협력의 내용, 협력방식, 예상되는 난관, 협력의 중요한 점 협력하는 경우: 이유, 모임횟수, 협력사안, 어려움	1, 2. 3-1～3-8
협력 방식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협력 내용, 협력 방식, 기대하는 관계, 역할분담에 대한 의견	4, 5
통합운영에 대한 의견	법, 담당부처, 종사자 자격과 처우, 프로그램	6
협력의 전제 조건		7
야간무상돌봄에 대한 의견		8
기타		9

Ⅱ. 지역아동센터와 초등돌봄교사 설문조사 결과

1. 소속기관별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1) 소속기관별 종사자 연령

응답자의 소속기관별 일반적인 사항을 비교한 결과 첫째, 종사자의 연령에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와 초등돌봄교실 종사자간의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x^2=38.531, p<.001). 두 기관모두 40대 종사자가 가장 많았으나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50대와 30대 종사자도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소속기관별 종사자 연령 단위: 명(%)

연령대	소속기관		x^2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20대	49(8.7)	3(2.2)	38.531***
30대	95(16.9)	18(12.9)	
40대	234(41.6)	97(69.8)	
50대	169(30.0)	20(14.4)	
60대	16(2.8)	1(0.7)	
평균(SD)	44.63(9.25)	44.81(5.34)	
계	563(100.0)	139(100.0)	

2) 소속기관별 종사자 학력

다음으로 지역아동센터와 초등돌봄교실 종사자의 학력차이를 알아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

〈표 3〉 소속기관별 종사자 학력 단위: 명(%)

학력	소속기관		x^2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고졸	5(0.9)	1(0.7)	25.196***
전문대졸	163(27.8)	41(29.1)	
4년제졸	277(47.3)	88(62.4)	
대학원졸	141(24.1)	11(7.8)	
계	586(100.0)	141(100.0)	

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x^2=25.196, p<.001). 두 기관 모두 4년제 졸업 학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지역아동센터와 초등돌봄교실 간의 학력차이가 집단 간 차이로 나타났다.

3) 소속기관별 종사자 전공

지역아동센터와 초등돌봄교실 종사자의 전공을 알아본 결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전공은 사회복지가 8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초등돌봄교실 종사자의 전공은 44.5%가 교육학이고, 30.7%가 기타 전공으로 나타나 기관별 종사자의 전공차이가 나타났다.

〈표 4〉 소속기관별 종사자 전공 단위: 명(%)

전공	소속기관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사회복지	479(83.4)	31(27.0)
교육학	68(11.8)	61(44.5)
아동학	136(23.7)	18(13.1)
평생교육학	0(0)	5(3.6)
기타	0(0)	42(30.7)
전공없음	7(1.2)	4(2.9)
계	574(100.0)	137(100.0)

* 다중응답 결과

4) 소속기관별 종사자 경력

소속기관별 종사자의 경력을 알아본 결과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1-2년 종사자가 34.7%로

〈표 5〉 소속기관별 종사자 경력 단위: 명(%)

	소속기관		x^2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1-2년	176(34.7)	55(45.1)	38.611***
3-4년	111(21.9)	49(40.2)	
5-6년	83(16.4)	10(8.2)	
7-8년	79(15.6)	5(4.1)	
9-10년	37(7.3)	3(2.5)	
11년이상	21(4.1)	0	
평균(SD)	4.78(.23)	4.23(2.44)	
계	507(100.0)	122(100.0)	

가장 높았으며, 초등돌봄교실에서도 1-2년이 45.1%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후 경력에 있어서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x^2=38.611, p<.001).

2. 소속기관별 응답자의 근무 특성

1) 소속기관별 지역특성

소속기관별 지역적 특성을 알아본 결과 응답자 중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각각 35.4%, 30.7%로 나타났으나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응답자의 92.0%가 대도시로 나타나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x^2=143.42, p<.001).

〈표 6〉 소속기관별 지역특성 단위: 명(%)

	소속기관		x^2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대도시	203(35.4)	127(92.0)	143.42***
중소도시	176(30.7)	4(2.9)	
농산어촌	185(32.3)	7(5.1)	
기타	9(1.6)	0(0)	
계	573(100.0)	138(100.0)	

2) 소속기관별 보수

소속기관별 종사자의 임금차이를 알아본 결과 지역아동센터의 평균 116만원, 초등돌봄교실이 131만원 정도로 초등돌봄교실이 약간 높은 수준의 임금을 보이고 있다. 집단 간의 보

〈표 7〉 소속기관별 종사자 보수 단위: 명(%)

	소속기관		x^2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100만원미만	158(29.4)	35(25.5)	88.225***
100-150만원 미만	340(63.2)	53(38.7)	
150-200만원 미만	35(6.5)	49(35.8)	
200만원 이상	5(0.9)	0(0)	
평균(SD)	116.3(25.4)	131.40(26.23)	
계	538(100.0)	137(100.0)	

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x^2=88.225, p<.001).

3) 소속기관별 아동 수

소속기관별 아동수를 알아본 결과 지역아동센터의 54.1%가 20-29명의 아동을 돌본다고 응답하였고, 초등돌봄에서는 58.7%가 20-29명의 아동을 돌본다고 응답하였다. 아동명수는 소속기관별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x^2=29.276, p<.001).

〈표 8〉 소속기관별 아동 수 단위: 명(%)

아동 수	소속기관		x^2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1-9명	13(2.3)	3(2.2)	
10-19명	112(20.6)	32(23.2)	
20-29명	297(54.1)	81(58.7)	
30-39명	139(24.8)	17(12.3)	29.276***
40-49명	0(0)	0(0)	
50명이상	0(0)	5(3.6)	
계	561(100.0)	138(100.0)	

3. 소속기관별 협력 실태와 입장 비교

1) 소속기관별 협력 실태

(1) 소속기관별 상대기관에 대한 정보 정도

소속기관별 상대 기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정도를 알아본 결과 지역아동센터가 초등돌봄교실 종사자에 비해 알고 있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고, 그 정도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t=11.39, p<.001).

〈표 9〉 소속기관별 상대기관에 대한 정보 정도

	소속 기관별		t
	지역아동센터 (n=591) 평균(SD)	초등돌봄교실 (n=142) 평균(SD)	
상대기관에 대한 정보인식	3.32(.56)	2.56(.74)	11.39***

(2) 소속기관별 협력의 필요 정도

소속기관별 협력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응답률을 알아본 결과 지역아동센터 응답자의 98.0%가 협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초등돌봄교실의 응답자 중 49.6%만이 협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소속기관별 협력의 필요성은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x^2=263.637, p<.001).

〈표 10〉 소속기관별 협력에 대한 필요 단위: 명(%)

	소속기관		x^2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필요하다	581(98.0)	68(49.6)	263.637***
불필요하다	12(2.0)	69(50.4)	
계	593(100.0)	137(100.0)	

(3) 소속기관별 협력의 필요 이유

소속 기관별 협력이 필요한 이유를 알아본 결과 지역아동센터 응답자의 78.6%가 아동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하였고, 초등돌봄교실의 35.3%가 아동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이고, 36.8%가 프로그램을 공유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하여 소속기관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x^2=93.731, p<.001).

〈표 11〉 소속기관별 협력 필요 이유 단위: 명(%)

	소속기관		x^2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 공유를 위해	87(15.2)	25(36.8)	93.731***
아동문제 상의를 위해	449(78.6)	24(35.3)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30(5.3)	11(16.2)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3(0.5)	0(0)	
기타	2(0.4)	8(11.8)	
계	593(100.0)	137(100.0)	

(4) 소속기관별 협력의 불필요 이유

소속기관별 협력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을 알아본 결과 지역아동센터의 50.0%가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고,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45.2%가 지

역사회와의 협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과 협력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응답하여 소속기관별 협력이 불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이유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x^2=20.213, p<.001).

〈표 12〉 소속기관별 협력 불필요 이유 단위: 명(%)

	소속기관		x^2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6(50.0)	28(45.2)	20.213***
협력의 필요성 못 느낌	2(16.7)	28(45.2)	
상대 기관과 관계가 좋지 않음	1(8.3)	1(1.6)	
상대기관이 어렵게 느껴져서	3(25.0)	0(0)	
기타	0(0)	5(8.1)	
계	12(100.0)	62(100.0)	

(5) 소속기관별 현재 협력정도

소속기관별 현재의 협력정도를 알아본 결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56.9%가 필요에 따라 협력한다고 응답하였고,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22.2%가 협력이 거의 없다고 응답하였다. 소속기관별 협력정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x^2=107.663, p<.001).

〈표 13〉 소속기관별 현재 협력정도 단위: 명(%)

	소속기관		x^2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전혀 협력 없음	27(4.6)	44(31.9)	107.663***
협력이 거의 없음	160(27.1)	46(33.3)	
필요에 따라 협력함	336(56.9)	42(30.4)	
긴밀히 협력함	67(11.4)	6(4.3)	
계	590(100.0)	138(100.0)	

2)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기관의 응답 결과

(1) 소속기관별 협력이 안 된 이유

소속기관별 협력이 안된 이유를 알아본 결과 지역아동센터 응답자의 경우 36.2%가 협력 방법을 몰라서, 35.7%가 상대 기관의 거부로 인해서 협력이 안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초등돌봄교실 응답자의 경우 55.2%가 협력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라고 응답하여 소속기관별

〈표 14〉 소속기관별 협력이 안 된 이유 단위: 명(%)

	소속기관		x^2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협력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27(13.6)	53(55.2)	72.240***
상대 기관의 거부로 인해서	71(35.7)	3(3.1)	
협력방법을 몰라서	72(36.2)	28(29.2)	
기타	29(14.6)	12(12.5)	
계	199(100.0)	96(100.0)	

협력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x^2=72.240, p<.001).

(2) 소속기관별 협력의 참여의사

소속기관별 협력에 대한 참여 의사를 알아본 결과 지역아동센터 응답자의 53.0%가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초등돌봄교실 응답자의 경우 38.8%만이 참여하겠다고 응답하여 소속기관별 협력에 대한 참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x^2=133.065, p<.001).

〈표 15〉 소속기관별 협력의 참여의사 단위: 명(%)

	소속기관		x^2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적극 참여	94(42.9)	3(3.1)	133.065***
참여	116(53.0)	38(38.8)	
참여 안함	2(0.9)	13(13.3)	
잘 모르겠음	7(3.2)	44(44.9)	
계	219(100.0)	98(100.0)	

(3) 소속기관별 희망하는 협력내용

소속기관별 협력하고 싶은 내용을 알아본 결과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새로운 대상 아동을 발굴하고 배치하는 것과 관련해 초등돌봄교실과 협력하고 싶지만, 초등돌봄교실 종사자의 경우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것으로 협력하고자 하였다. 소속기관별 희망하는 협력내용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x^2=59.726, p<.001).

〈표 16〉 소속기관별 희망하는 협력내용 단위: 명(%)

	소속기관		x^2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새로운 대상 아동발굴과 배치	155(70.8)	22(27.5)	59.726***
프로그램 공유	37(16.9)	34(42.5)	
예산 공유	2(0.9)	0(0)	
정보 공유	14(6.4)	9(11.3)	
공간 공유	5(2.3)	2(2.5)	
외부강사 인력 공유	0(0)	4(5.0)	
아동 정보 공유	6(2.7)	6(7.5)	
종사자 처우 정보 공유	0(0)	2(2.5)	
기타	0(0)	1(1.3)	
계	219(100.0)	80(100.0)	

(4) 소속기관별 희망하는 협력방식

소속기관별 희망하는 협력방식에 대해 알아본 결과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44.0%가 정기적인 협력회의 방식으로 협력하고자 했으나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40.5%가 필요시에만 협력하는 방식으로 협력하고자 했다. 소속기관별 협력방식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x^2 =59.976, p<.001).

〈표 17〉 소속기관별 희망하는 협력방식 단위: 명(%)

	소속기관		x^2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필요시만 협력	40(18.3)	34(40.5)	59.976***
정기적인 협력회의	96(44.0)	26(31.0)	
기관장간의 협력	53(24.3)	1(1.2)	
종사자간의 협력	9(4.1)	10(11.9)	
담임교사와의 협력	18(8.3)	3(3.6)	
교사 교육 및 연수	0(0)	4(4.8)	
원조해줄 기관을 통한 협력	1(0.5)	4(4.8)	
기타	1(0.5)	2(2.4)	
계	218(100.0)	84(100.0)	

(5) 소속기관별 협력 시 예상되는 어려움

소속기관별 협력 시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한 의견으로 지역아동센터의 41.3%가 상대기관의 고압적인 태도로 어려움이 발생될 것이라고 응답한 것에 비해,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많은 업무로 외부활동이 여의치 않음을 어려움으로 지적하였다. 소속기관별 예상되는 협력시 어려움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x^2=47.768, p<.001).

〈표 18〉 소속기관별 협력 시 예상되는 어려움 단위: 명(%)

	소속기관		x^2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상대기관의 고압적 태도	88(41.3)	4(5.0)	47.768***
센터장의 부정적인 태도	11(5.2)	4(5.0)	
많은 업무로 외부활동이 여의치 않음	62(29.1)	42(52.5)	
이질적인 가치와 운영방식의 차이로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움	50(23.5)	22(27.5)	
기타	2(0.9)	8(10.0)	
계	213(100.0)	80(100.0)	

(6) 소속기관별 협력 시 필요한 전제조건

소속기관별 협력 시 전제조건에 대한 의견을 알아본 결과 지역아동센터 응답자의 28.0%가 종사자간의 친밀감이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초등돌봄교실의 경

〈표 19〉 소속기관별 협력 시 필요한 전제조건 단위: 명(%)

	소속기관		x^2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협력이전에 종사자간의 친밀감 형성	60(28.0)	12(15.6)	73.366***
사전 정보 공유	37(17.3)	17(22.1)	
상대기관의 특성과 입장 이해	7(3.3)	21(27.3)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40(18.7)	1(1.3)	
풍부한 자원	10(4.7)	15(19.5)	
협력을 위한 관계자의 의지	59(27.6)	9(11.7)	
기타	1(0.5)	2(2.6)	
계	214(100.0)	77(100.0)	

우 응답자의 27.3%는 상대기관의 특성과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소속기관별 협력 시 전제조건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x^2=73.366, p<.001).

3) 현재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의 응답 결과

(1) 소속기관별 실제 협력하는 이유

소속기관별 실제 협력해야하는 이유에 대한 의견을 알아본 결과 지역아동센터 응답자의 30.4%가 협력후에 좋은 결과가 있어서 계속 협력한다고 응답하였고,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26.8%가 협력 후 좋은 결과가 있어서라고 응답하였고, 24.4%가 관청의 적극적인 권유라고 응답하였다. 소속기관별 협력하는 이유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x^2=17.981, p<.001).

〈표 20〉 소속기관별 협력하는 이유 단위: 명(%)

	소속기관		x^2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기관장의 의지	77(22.5)	7(17.1)	17.981***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서	84(24.6)	5(12.2)	
정기적인 모임이 있어서	17(5.0)	2(4.9)	
관청의 적극적인 권유로	25(7.3)	10(24.4)	
협력 후 좋은 결과가 있어서	104(30.4)	11(26.8)	
학부모의 요청으로	4(1.2)	2(4.9)	
기타	31(9.1)	4(9.8)	
계	342(100.0)	41(100.0)	

(2) 소속기관별 실제 협력회수

소속기관별 상대기관과 협력한 횟수를 알아본 결과 지역아동센터는 68.6%가 사안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초등돌봄교실 역시 44.7%도 사안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협력한다고 응답하였다. 협력횟수에 대한 소속기관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x^2=37.269, p<.001).

(3) 소속기관별 실제 협력사안

소속기관별 실제 협력하는 내용이 어떠한지 알아본 결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39.2%가 새로운 대상 아동 발굴과 배치라고 응답하였고, 초등돌봄교실은 응답자의 22.5%가 새로운

〈표 21〉 소속기관별 실제 협력횟수 단위: 명(%)

	소속기관		x^2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사안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236(68.6)	17(44.7)	37.269***
주 1회	2(0.6)	1(2.6)	
월 1회	44(12.8)	1(2.6)	
분기별 1회	37(10.8)	5(13.2)	
기타	25(7.3)	14(36.8)	
계	199(100.0)	96(100.0)	

〈표 22〉 소속기관별 실제 협력사안

	소속기관		x^2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새로운 대상 아동발굴과 배치	136(39.2)	9(22.5)	97.908***
프로그램 공유	57(16.4)	9(22.5)	
예산 공유	7(2.0)	2(5.0)	
정보 공유	47(13.5)	1(2.5)	
공간 공유	14(4.0)	1(2.5)	
외부강사 인력 공유	2(0.6)	7(17.5)	
아동 정보 공유	77(22.2)	3(7.5)	
행사 공동 진행	3(0.9)	0(0)	
기타	4(1.2)	8(20.0)	
계	347(100.0)	40(100.0)	

대상 아동 발굴과 배치 및 프로그램 공유를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소속기관별 협력내용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x^2=97.908, p<.001).

(4) 소속기관별 실제 협력 시 어려움

소속기관별 실제 협력 시 어려운 점에 대해 알아본 결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41.8%가 상대기관을 잘 몰라서 어렵다는 응답을 하였고,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42.4%가 많은 업무로 외부활동이 어렵다고 응답하여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x^2=59.554,

〈표 23〉 소속기관별 실제 협력시 어려움 단위: 명(%)

	소속기관		x^2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상대기관의 고압적인 태도	48(16.2)	0(0)	59.554***
상대기관의 부정적인 인식	23(7.7)	1(3.0)	
상대기관을 잘 몰라서	124(41.8)	2(6.1)	
기관장이 협력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9(3.0)	0(0)	
많은 업무로 외부활동이 어려움	67(22.6)	14(42.4)	
이질적인 가치로 합의도출하기 어려움	12(4.0)	6(18.2)	
기타	14(4.7)	10(30.3)	
계	297(100.0)	33(100.0)	

p<.001).

(5) 소속기관별 앞으로 협력하고자 하는 내용

소속기관별 앞으로 협력하고자 하는 내용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지역아동센터 응답자의 62.9%는 새로운 대상 아동 발굴과 배치라고 응답하였고, 초등돌봄교실 종사자의 경우 36.0%가 프로그램 공유를 원하고 있었다. 소속기관별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표 24〉 소속기관별 앞으로 협력하고자 하는 내용 단위: 명(%)

	소속기관		x^2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새로운 대상 아동발굴과 배치	349(62.9)	37(33.3)	58.408***
프로그램 공유	79(14.2)	40(36.0)	
예산 공유	12(2.2)	3(2.7)	
정보 공유	56(10.1)	12(10.8)	
공간 공유	23(4.1)	4(3.6)	
외부강사 인력 공유	12(2.2)	8(7.2)	
아동 정보 공유	22(4.0)	3(2.7)	
행사 공동 진행	1(0.2)	1(0.9)	
기타	1(0.2)	3(2.7)	
계	555(100.0)	111(100.0)	

게 나타났다(x^2=58.408, p<.001).

(6) 소속기관별 앞으로 협력하고자 하는 방식

소속기관별 앞으로 상대기관과 협력하고자 하는 방식을 알아본 결과 지역아동센터 응답자의 41.8%가 정기적인 협력회의를 바라고 있었지만, 초등돌봄교실 응답자의 33.6%가 필요한 사안에만 협력하고자 했다. 소속기관별 협력 방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x^2=78.768, p<.001).

〈표 25〉 소속기관별 앞으로 협력하고자 하는 방식 단위: 명(%)

	소속기관		x^2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필요한 사안에만 협력	61(12.6)	36(33.6)	78.768***
정기적인 협력회의	202(41.8)	23(21.5)	
기관장간의 협력	109(22.6)	8(7.5)	
실무자간의 협력	82(17.0)	15(14.0)	
교사교육 및 연수	6(1.2)	11(10.3)	
원조 기관과의 협력	20(4.1)	11(10.3)	
기타	3(0.6)	3(2.8)	
계	483(100.0)	107(100.0)	

(7) 소속기관별 협력을 위한 중점 부분

소속기관별 협력에 필요한 사안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응답자는 신뢰관계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32.1%가 응답하였고, 초등돌봄교실의 경우는 응답자의 27.5%가 서로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소속기관별 협력을 위한 중요사안에 대한 인식이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x^2=61.885, p<.001).

(8) 소속기관별 아동돌봄 서비스 제공관계 입장

소속기관별 아동돌봄 서비스 제공관계에 대한 입장을 알아본 결과, 지역아동센터 응답자의 45.3%은 역할분담형으로 운영하고자 했고, 초등돌봄교실 응답자의 44.6%이 기존의 방식대로 진행하기를 바랬다. 소속기관별 서비스 제공에 대한 입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x^2=34.250, p<.001).

〈표 26〉 소속기관별 협력을 위한 중점사안 단위: 명(%)

	소속기관		x^2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종사자간의 친밀성 형성	113(20.5)	15(13.8)	61.885***
신뢰관계 형성	177(32.1)	26(23.9)	
서로에 대한 이해	137(24.9)	30(27.5)	
협력하게 하는 제도적 조치	36(6.5)	2(1.8)	
자원공동 이용	13(2.4)	18(16.5)	
관계자의 의지	75(13.6)	15(13.8)	
기타	0(0)	3(2.8)	
계	551(100.0)	109(100.0)	

〈표 27〉 소속기관별 아동돌봄 서비스 제공관계 입장 단위: 명(%)

입장	소속기관		x^2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기존의 방식대로	125(22.4)	54(44.6)	34.250***
하나로 통합 운영	141(25.3)	9(7.4)	
역할분담형 운영	253(45.3)	53(43.8)	
기타	39(7.0)	5(4.1)	
계	219(100.0)	98(100.0)	

(9) 소속기관별 역할분담에 대한 입장

소속기관별 역할분담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 지역아동센터 26.4%가 주간보호는 돌봄교실, 야간보호는 지역아동센터가 담당해야한다고 응답하였고, 초등돌봄교실의 38.0%도 주간보호는 돌봄교실, 야간보호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담당하는 것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소속기관별 역할분담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x^2=15.543, p<.001).

(10) 소속기관별 부처통합에 대한 입장

소속기관별 부처통합에 대한 입장을 알아본 결과, 지역아동센터 응답자의 62.8%가 보건복지부에서 통합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고, 초등돌봄교실에서는 84.9%가 교육부에서 통합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다. 소속기관별 부처통합에 대한 입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표 28〉 소속기관별 역할분담에 대한 입장 단위: 명(%)

역할분담 방식	소속기관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초등 저학년은 초등돌봄교실, 고학년과 청소년은 지역아동센터에서 담당	126(24.7)	37(30.6)	15.543**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 가정 중심으로 부모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아동센터는 빈곤아동을 대상으로 무료 원칙	125(24.5)	14(11.6)	
초등돌봄교실은 일반아동, 지역아동센터는 개별적 지도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	67(13.1)	12(9.9)	
초등돌봄교실은 주간보호, 지역아동센터는 야간보호 중심	135(26.4)	46(38.0)	
역할분담하지 않는다	51(10.0)	9(7.4)	
기타	7(1.4)	3(2.5)	
계	511(100.0)	121(100.0)	

〈표 29〉 소속기관별 부처통합에 대한 입장 단위: 명(%)

	소속기관		x^2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교육부	103(22.8)	62(84.9)	112.784***
보건복지부	284(62.8)	10(13.7)	
기타	65(14.4)	1(1.4)	
계	452(100.0)	73(100.0)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x^2=112.784, p<.001).

(11) 소속기관별 오후 10시 야간보호에 대한 입장

소속기관별 오후 10시 야간보호에 대한 입장에 대해 알아본 결과, 지역아동센터 응답자의 51.6%는 아동의 이동으로 지역아동센터에 악영향을 준다는 입장을 보였고, 초등돌봄교실의 32.7%가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소속기관별 오후 10시 야간보호에 대한 입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x^2=135.307, p<.001).

〈표 30〉 소속기관별 오후 10시 야간보호에 대한 입장 단위: 명(%)

	소속기관		X^2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현실화하기 어렵다	40(7.2)	37(32.7)	135.307***
초등보육을 확대하자	47(8.5)	35(31.0)	
종사자의 처우에 악영향을 준다	132(23.8)	28(24.8)	
아동의 이동으로 지역아동센터에 악영향을 준다	286(51.6)	13(11.5)	
기타	49(8.8)	0(0)	
계	554(100.0)	73(100.0)	

(12) 소속기관별 협력에 대한 입장 정도

소속기관별 협력에 대한 입장 정도를 알아본 결과 지역아동센터 응답자의 협력에 대한 조건에 대한 평균값이 초등돌봄교실 응답자의 평균값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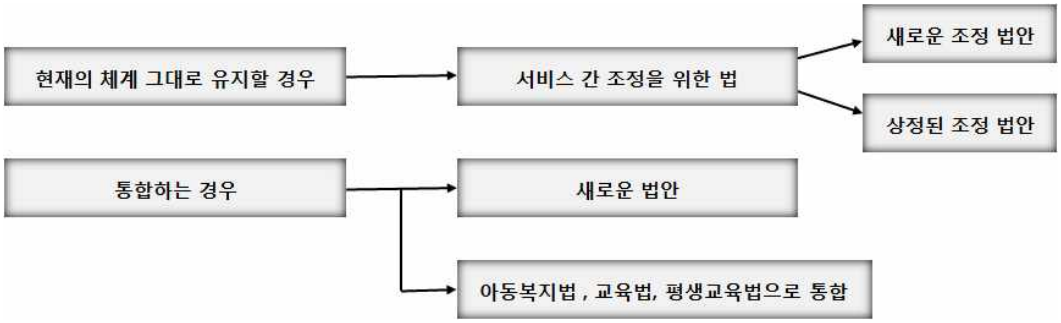
〈표 31〉 소속기관별 협력에 대한 입장 정도 단위: 명(%)

협력을 위한 필요 조건	소속 기관별		t
	지역아동센터 (n=591) 평균(SD)	초등돌봄교실 (n=142) 평균(SD)	
상대기관에 대한 정보인식	3.32(.56)	2.56(.74)	11.39***
협력을 위한 친밀감필요	3.32(.69)	2.89(.94)	4.633***
신뢰감형성 필요	3.37(.66)	3.11(.94)	2.750**
협력의지 필요	3.25(.78)	3.00(.94)	2.545*
조정기관 필요	3.05(.85)	2.75(.98)	3.026**
제도 필요	3.19(.81)	2.74(.91)	4.806***
담당부처간의 협력 필요	3.43(.70)	3.05(.87)	4.244***
법안 제정 필요	3.33(.74)	2.80(1.01)	5.265***
처우 비슷할 필요	3.29(.80)	2.55(.98)	7.355***
자격조건 호환 필요	3.15(.82)	2.70(.98)	4.439***
예산 교류 필요	3.07(.83)	2.26(.94)	8.138***
프로그램 공유 필요	3.17(.74)	2.66(.99)	5.039***
외부강사 공유 필요	3.11(.82)	2.72(1.02)	3.771***

Ⅲ. 사회적 돌봄 서비스 간 협력방안

아동을 위한 사회적 돌봄서비스는 방임되는 아동이 없는 사회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하지만 아동이 홀로 혹은 형제자매와 함께 지내는 경우의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적절한 교육적 활동을 통해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나아가 아동의 즐거운 여가생활에 대한 권리보장, 안전하게 성장해나가기 위한 권리의 보장 등 권리실현의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선별적 복지적 관점에서 방과후 방임되는 아동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장기적으로는 보편적 복지적 관점이 실현되어야 하는 서비스이다. 이를 위한 각 영역별로 협력방안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 법



〔그림 1〕 아동을 위한 사회적 돌봄 관련 법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

법안은 현재의 서비스 체계를 유지하는 경우와 통합하는 경우에 따라 다르게 체계 구성을 할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따르면 통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전체 응답자의 22.1%이며 이중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경우 22.4%, 초등돌봄교사의 경우 44.6%에 불과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통합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부정적 의견은 자칫 부서의 변화가 있을 때에 각 시설 혹은 기관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으며, 통합을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나 (사)초등학교보육교사연합회가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설득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1) 현재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아동복지법과 시행령 및 운영지침 등이 시설 운영의 기준이며, 초등돌봄교실은 아직 교육법의 개정이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지만, 교육법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근거법안이 다른 두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협력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나 초등돌봄교실 뿐 아니라 다른 유사 사업까지 포함한 서비스 간 조정 역할을 하는 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회에 상정 중인 "방과후 아동 보호와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같은 형태가 될 것이다.

아동의 방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이미 2000년대 이후 몇 번의 시도가 있었는데, 2005년 여성단체연합이 주도하여 '학령기 아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첫 시도가 있었고, 2008년 최영희 의원을 중심으로 발의하였던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그것이다. 이 법안들은 어느 한 시설이나 기관의 지원에 관한 법안들이 아니라, 아동의 보호 혹은 교육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며, 이를 위한 각 부처의 다양한 서비스와 시설들 간의 협력을 위한 정책과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두 협의회는 새로운 조정법안을 마련하거나 이미 상정되어 있는 조정 법안이 통과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서비스 체계를 유지하면서 각 서비스간 조정을 위한 법안은 각 서비스 간 조정을 위한 중앙 정부 차원의 위원회와 지방 정부 차원의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등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며,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기 위하여 학령기 전 아동을 위한 사회적 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한 장기적 그리고 단기적 계획을 세우는 의무를 정부에게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전담부처마다 달리 책정되어 있는 각 돌봄서비스 시설간 예산을 지자체 수준에서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들이 필요하다.

2) 아동을 위한 사회적 돌봄서비스를 통합하는 경우

서비스 통합을 한다면 법안 역시 하나의 법안으로 통일되어야 한다. 이 때에는 새로운 법안을 입법화하거나 기존의 법안 즉, 아동복지법이나 교육법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새로운 법안을 입법화할 경우에는 아동을 위한 사회적 돌봄서비스의 위상을 높이게 되고 보다 확실한 정당성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장기적인 아동을 위한 사회적 돌봄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 예산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전략이며, 만일 이를 위한 노력을 하려고 한다면 일단 조정법안을 마련한 후에 각 서비스 간의 협력과 연대활동을 통해 이루어내야 할 것이며, 이는 지난한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협의회의 역량에 상당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 또한 존재한다.

보건복지부로 통합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을, 교육부로 통합되는 경우에는 교육법을

그 근거법으로 한다. 담당부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교육부(22.1%), 복지부(39.3%)로 통합되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경우 교육부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22.8%, 복지부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62.8%이며, 초등돌봄교사의 경우에는 교육부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84.9%, 복지부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13.7%인 것으로 나타나, 시설 종사자들에 따른 의견의 차이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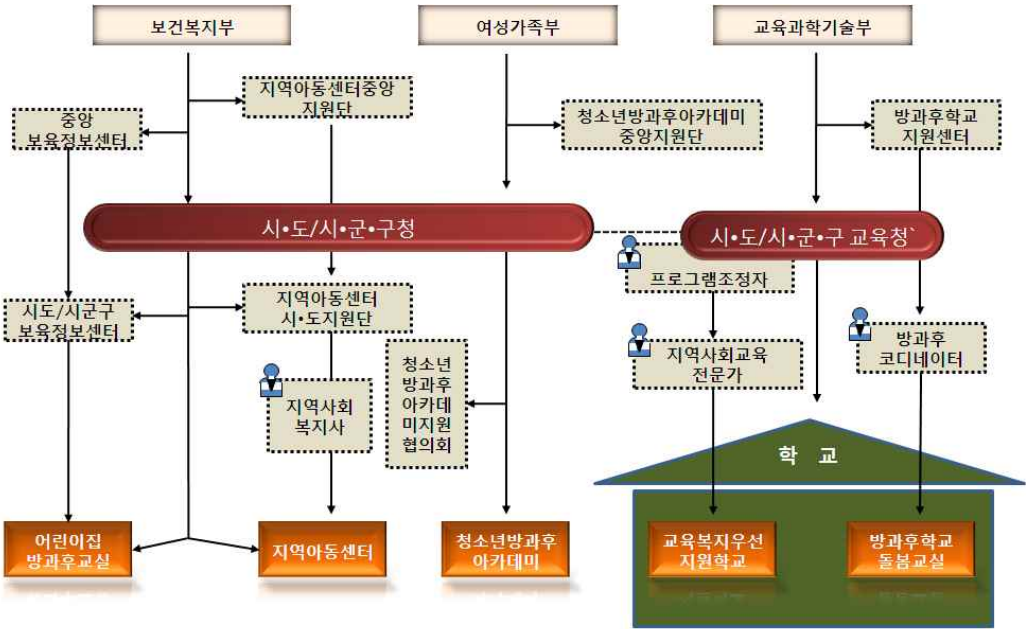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한 아동복지법의 조항은 고유 업무를 규정한 것 외에는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지침이나 운영매뉴얼을 통해 매년 운영 관련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사업, 평가 등이 매번 급조되는 경향이 있다. 2012년 평가에서 사례관리를 주된 평가 항목으로 중앙지원단과 보건복지부가 제시하였으나, 전문가는 물론 현장에서의 반발과 비판이 빗발쳤다. 이는 사례관리에 대한 준비기간, 교육 및 훈련의 시간이 부재한 상황에서 평가하기 불과 몇 달 전에 이전과 다른 평가항목을 제시했기 때문이다(물론 근본적으로는 지역아동센터의 정체성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이다).

아동을 위한 사회적 돌봄서비스 관련한 정책이 매년 급조되지 않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계획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즉, 아동을 위한 사회적 돌봄서비스에 대한 좀 더 세밀한 항목이 요구되고 있으며, 전체 아동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모든 아동의 욕구를 파악하고 사정하며 욕구를 충족하도록 돕기 위한 서비스와의 연결을 위해서 전체 아동복지의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조항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교육부로 통합되는 경우에는 교육법에 근거할 수도 있고 평생교육법에 근거할 수도 있다. 스웨덴의 경우 교육법 내의 “복지” 장을 통해 학령기 아동에 대한 방과후 서비스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스웨덴은 방과후 서비스가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목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이는 성인 중심의 목표임에 대한 자성을 통해 아동 중심의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게 됨으로써 방과후 서비스는 학교 안의 교육과정과는 다른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그 위상을 정리하고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고 관련 조항 역시 교육법에서 다룰 수 있게 되었다.

우리의 경우에도 아동을 위한 사회적 돌봄서비스를 제도교육 밖의 교육활동으로 본다면 평생교육의 체계 속에 넣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평생교육의 체계로 그 위상을 두지 않는다 해도 학교의 방과후 학교(돌봄교실 포함) 활동과 학교밖 방과후 학교로 지역아동센터를 설정하고 이를 통합하여 운영이 가능하다.

2. 전달체계



〔그림 2〕 우리나라의 아동을 위한 사회적 돌봄서비스 전달체계

아동을 위한 방과후 돌봄서비스 전달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이 여전히 통계상 상당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발굴과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서비스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도시의 경우에는 대상 아동이 밀집되어 있고 방과후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이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갈등이 아직 표면으로 드러나지는 않고 있으나 농산어촌의 경우 대상 아동의 수가 적기 때문에 갈등이 증폭되는 현실이다. 현재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수에 비해 인프라는 매우 적은 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전히 새로운 시설이 더욱 확대운영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지역아동센터와 초등돌봄교실이 갈등할 이유가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그렇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지역적으로 지역아동센터든 돌봄교실이든 하나의 시설이 마을의 전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다면 다른 유형의 방과후 시설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아동을 위한 사회적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얼마나 필요하며 현재 얼마나 존재하는 지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을 발굴하고 배치하며, 아직 배치되지 않은 아동을 위해 새로운 시설(지역아동센터든 초등돌봄이든)을 운영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등의 기능을 하는 체계가 없기 때문이다.

지역아동센터와 초등돌봄교실이 양적으로 확산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도가 낮은 것 역시 전달체계 문제로 보아야 한다. 방과후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학부모/아동에게는 언제라도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로 인식되고 있지 않는 것은 지역아동센터가 우리나라 복지 정책의 기조인 선별성의 원칙에 따라 빈곤아동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빈곤가정은 아니나 방과후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예: 맞벌이 가정의 자녀)은 초등돌봄교실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지만 초등돌봄교실이 수요를 충족할 만큼 많지 않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가 빈곤아동 전체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초등돌봄교실이 맞벌이 가정 자녀를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이 증가(개별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예산의 증가폭보다는 전체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 운영보조금의 총계는 지속적인 증가를 해왔음) 함에 따라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 의식이 증가하고 있다. 즉, 국가의 지원이 증가하는 만큼 지역아동센터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이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국가 수준의 개입 혹은 관리는 평가 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사업의 효율성의 책임이 개별 지역아동센터에 전적으로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려면 지역사회 내에서 그 위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 합의가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성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합의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네트워크의 구축(전달체계 포함)은 개별 시설의 책임이라기 보다는 지역사회 나아가 지자체, 정부가 주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달체계 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첫째, 아동을 위한 사회적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과 학부모의 욕구에 민감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아동을 위한 사회적 돌봄서비스는 저소득 가정이나 방임의 위험이 있는 아동들 뿐 아니라 모든 아동과 부모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영유아 보육 서비스가 초기의 선별적 서비스에서 보편적 서비스로 진화한 것과 같이 방과후 서비스 또한 욕구가 있는 모든 아동과 부모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둘째, 아동을 위한 사회적 돌봄서비스에 대한 초입기능이 필요하다. 현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개별적으로 필요한 아동을 발굴하고 모집하고 있다. 이는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 간 갈등을 조장할 뿐 아니라 아동을 위한 사회적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을 누락시키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전달체계 속에서 아동을 위한 사회적 돌봄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있는 아동을 발굴하고 시설에 배치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수적이다.

셋째, 아동중심적 전달체계의 구축해야 한다. 정책 수행의 경제적 효율성, 투표권이 있는 성인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아동을 위한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모든 아동정책의 목표가 저출산 극복, 일자리 창출이라는 성인중심의 목표가 아니라 아동의 건전한 발달이라는 목표로 설정되어야 한다.

넷째,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전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지자체의 장, 교육감의 임기 동안 운영되는 일시적인 전달체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다섯째, 행정전달체계와 서비스 전달체계의 이분적 구조가 필요하다. 현재의 체계에서는 아동복지에 대한 전문적 정책 실행을 할 수 있는 복지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즉, 복지전달체계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어 복지 서비스 전달에 있어 전문성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으며, 담당 공무원이 자주 교체되기 때문에 경험의 축적 역시 어렵다. 따라서 행정전달체계는 공무원들이 집행하고 재정과 행정을 담당하며 서비스 전달체계는 아동의 욕구사정과 이에 대한 서비스의 연결, 평가를 담당함으로써 공무원의 순환보직제로 인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행정 서비스는 중앙의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의 아동복지 혹은 가족복지 담담 공무원들이 집행하고 있으며, 서비스 지원체계는 지역아동센터지원단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 전달체계의 경우 지역아동센터지원단(중앙지원단과 시・도지원단)의 경우 시설장과 생활복지사를 위한 교육을 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와 행정 담당 공무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드림스타트가 전달체계 속으로 편입된 상황에서 드림스타트의 역할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즉, 드림스타트가 대상 아동을 발굴하고 배치하는 초입기능을 하는 곳인지 혹은 전문사례관리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초등돌봄교실의 경우에는 행정 서비스는 교육청이라는 전문행정전달체계를 지니고 있고, 구체적 실행단계에서는 각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운영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청은 학교를 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곳이기 때문에 초등돌봄 자체에 대한 전문적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초등돌봄 서비스를 부차적인 업무로 대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특히 지역아동센터와 초등돌봄이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서비스 지원하는 드림스타트(혹은 지원단)와 지역교육청과의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여섯째, 지역아동센터와 학교에서의 초등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아동을 위한 사회적 돌봄서비스에 대한 공공 지원의 격차를 줄일 수 있어야 한다. 아동을 위한 사회적 돌봄서비스의 대표적 유형인 지역아동센터와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전담하는 정부 부처의 차이는 있으나 대상은 모두 같은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들의 처우나 지원 예산은 많은 차이가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이용 아동에 대한 국가의 차별이며 이는 헌법은 물론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도 위배된다. 그러므로 부처와 관계없이 지자체 수준에서 협력을 통해 예산이 서로 넘나들 수 있어야 한다.

충청남도의 경우 도교육청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 3억 6천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실행 중에 있으며, 충청남도교육청의 지역교육청 중 서산교육청은 교사를 지역아동센터에 유급으로 지원하고 있음. 이의 근거를 위해 충청남도 의회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였음.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하여 앞으로 지역아동센터와 초등돌봄교실의 긴밀한 협력을 위한 전달체계의 개선 방식은 통합방식과 위원회 방식으로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1) 담당부처의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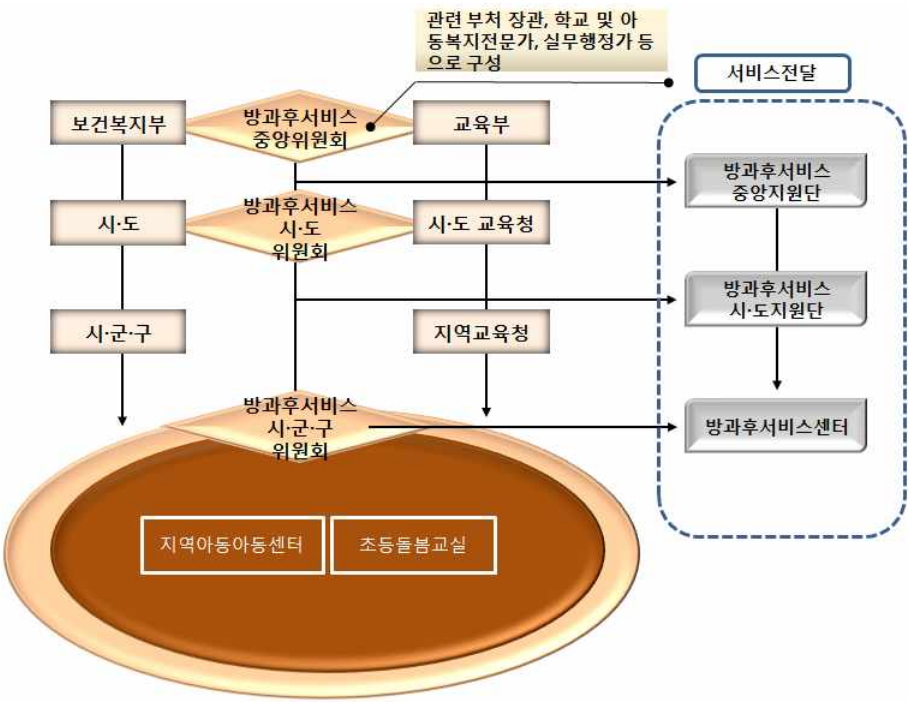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의 전달체계는 지역아동센터와 보육시설의 방과후반은 보건복지부가, 학교의 돌봄교실은 교육부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가 전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담부처가 서로 다르다보니 유사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이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들어 지역교육청과 지자체간의 협력이 모색되고 있기도 하나, 이는 전국적으로 볼 때 미미한 현실이고, 협력을 한다 해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아동을 위한 사회적 돌봄서비스에 대한 국가적 수준에서의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하나의 전담부처에서 담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스웨덴의 경우 아동을 중심으로 방과후 서비스를 실행하기 위해(서비스의 목표가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에서 아동의 전인적 발달과 권리 실현으로)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전환한 예를 볼 때, 우리나라도 교육부가 전담부처로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사회운동의 차원의 축적된 경험이 사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반발을 설득의 과정으로 해결해야 하며, 이 설득의 과정에 지역아동센터가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개별 학교장과 개별 지역아동센터 간 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정책을 실행하게 된다면, 지역아동센터는 개별학교에 종속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적으로는 지역아동센터의 지역협의회와 지역교육청의 협의구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개별지역아동센터나 개별학교와의 관계는 이 구조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이는 주로 아동에 대한 발달 정보의 공유, 사례관리회의 공동 주관, 프로그램 정보 공유 등을 주요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 관계는 실무자간의 관계 즉, 지역아동센터나 초등돌봄교실의 종사자간의 협의를 포함해야 한다.

2) 전담부처 현행 유지 및 위원회 구성

전담부처의 통일은 부처 간 이견이 있어서 지금 당장 현실화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여러 전담부처가 협력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예: 방과후 서비스 특별위원회 등)를 구성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일본에서 채택한 방식이다.

다만, 중앙에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실무단을 방과후돌봄서비스지원단(가칭)을 두어 서비스 전달체계를 두는 것을 제안한다.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드림스타트와 지역아동센터 지원단, 학교 돌봄교실은 방과후학교지원단, 프로젝트조정자가 서비스전달체계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도 수준에서는 이를 통합하여 방과후서비스 중앙지원단을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그림 3〕 아동을 위한 사회적 돌봄서비스 전달체계안

중앙의 방과후서비스 중앙위원회는 아동을 위한 사회적 돌봄서비스의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담당부처간의 협력의 구체적 내용을 점검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방과후서비스 중앙지원단에서 책임을 진다. 이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와 초등돌봄 교사들의 보수교육에서 학교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을 연수

하도록 하고, 학교 교사들의 연수과정에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아동을 위한 사회적 돌봄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담당한다.

시·도 차원에서는 시·도 지자체와 시·도교육청과의 업무 협약 체결하거나 조례 제정하고 방과후서비스 지원단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구성, 운영 등에 대한 지침, 예산을 마련한다. 또한 각 방과후 서비스 지원센터에 대한 사업 평가, 우수 사례 발굴과 홍보를 하고, 방과후 서비스에 대한 실태 조사 및 통계를 수집한다. 또한 시·도 차원의 정책을 수립 및 실행의 책임을 진다.

시·군·구 차원에서는 방과후서비스지원센터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방과후서비스지원센터는 각 지자체에 있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족지원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성하거나 방과후돌봄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이는 기초지자체의 주민들이 자녀 양육과 관련한 상담을 하고 욕구를 사정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연결하기 위하여 모든 지원센터 간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각 사무실이 산재하여 있어서 주민들이 각자 자신의 문제를 사정한 후 지원센터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주민들은 어느 기관을 찾아야 할지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합 운영하거나 통합하지는 않더라도 한 곳에 배치함으로써 주민들이 다양한 문제를 지니고 방문하더라도 한 곳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에 용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초입 기능 외에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의 기능을 조정하고 지역사회 아동의 사회적 돌봄서비스 수요를 조사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더불어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가족의 사례관리를 하고, 지역사회 자원의 동원 및 배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3. 아동을 위한 사회적 돌봄서비스 시설의 확대 필요

우리나라 전체 아동 인구는 10,830,127명이며 이중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중 매일 혼자 있거나 형제자매와 함께 있는 즉,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1,107,330명이다(보건복지부, 2009).

〈표 32〉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 현황 (2009년 12월 기준, 단위 : 명)

학령기 아동인구	돌봄 필요한 아동인구[1]
10,830,127[2]	1,107,330[3] (100,0%)

1)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중 거의 매일 혼자 있거나 형제자매와 있는 경우의 아동 수임.
2) 보건복지부(2009),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은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하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보육시설, 종일돌봄교실 등이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방과후 보육 등 방과후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아동은 246.498명으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22.3%에 불과하며 77.7%의 아동이 가정과 사회 모두로부터 도움을 제공받고 있는 않은 방임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최근 방임 아동에 대한 성학대 사건 등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적 수준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표 33〉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 보호 현황

아동보호 현황	지역 아동센터[4] (3,690개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5] (178개소)	방과후 보육[6] (554개소)	초등[7] 돌봄교실 (6,200교실)	소 계	미보호 아동인구
명(%)	107,171 (9.7%)	8,200 (0.7%)	7,114 (0.6%)	124,013 (11.2%)	246,498 (22.3%)	860,832 (77.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	-

아직 미보호 상태에 있는 86만 여 명의 아동이 사회적 돌봄서비스를 받으려면 한 교실당 20명의 아동을 한 반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 돌봄서비스 시설 및 기관을 제외하고 4만 3천 개의 지역아동센터(방과후 교실)이 필요하다. 이 때 한 센터(교실) 당 월 4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을 전제로 하면 연간 2조 64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 아동들이 방임 상태에 있다는 상황을 전제로 할 때 이들에 대한 보호와 이를 위한 예산 확보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후에 각 가정에서 책임지고 있는 모든 아동까지 사회적 돌봄서비스를 확대하는 보편적 서비스로 나가야 할 것이다.

3) 보건복지부(2009),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4)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2012년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5) 여성가족부, 2011년 청소년백서.
6) 보건복지부(2011). 보육통계.
7) 김홍원(2011). 2011 방과후학교 성과분석 연구. 교육개발원.

4. 지역아동센터와 초등돌봄교실 협력을 위한 몇 가지 이슈

1) 역할분담에 대하여

지역아동센터와 초등돌봄교실이 협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역할분담하는 것을 대안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 운영시간의 차원에서의 역할분담은 대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야간돌봄을 초등돌봄교실이 주간돌봄을 하는 것으로, 아동연령의 차원에서의 역할분담은 초등돌봄교실이 저학년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지역아동센터는 고학년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안이다. 또 아동의 가정 경제적 수준에서는 초등돌봄교실이 맞벌이 가정의 아동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빈곤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자는 의견이다. 설문조사 결과 역할분담에 찬성하는 비율은 지역아동센터가 45.3%, 초등돌봄교사들은 43.8%인 것으로 나타났다. 역할분담을 고려하는 이유는 지역아동센터와 초등돌봄교실이 정책적으로 협력관계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자칫 대상 아동을 놓고 현장 간의 갈등이 예상되고, 이 상황에서 어느 한 시설이나 기관이 우위를 점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에서 논한 바와 같이 여전히 방임되고 있는 아동이 86만 명이나 된다. 방임되고 있어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발굴하고 배치하는 것이 제대로 해결되기만 한다면 이러한 갈등을 상당히 해결될 문제이다.

그리고 만일 역할 분담을 하게 된다면, 아동을 위한 사회적 돌봄서비스의 본래적 의미와 기능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아동이 학교나 가정에서 책임있는 성인과 함께 할 수 없는 시간에 있어야 하는 곳은 학교와 같이 구조화된 환경이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나 초등돌봄교실과 같이 비구조화된 환경이어야 한다. 아동들은 방과후 편안하고 안전한 느낌을 가지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하며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이 일정의 학년이 지나면 다른 낯선 곳으로 이동을 해야 한다거나, 시간이 되면 또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가정 형편에 의한 역할분담을 하게 될 때에는 빈곤아동의 낙인감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역할분담에 대한 논의는 아동의 관점에서 보자면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장의 욕구가 역할 분담이고, 양 협의회가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안에 대해 부정적이라면 자칫 협의회와 현장이 서로 갈등관계에 놓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현장의 논의를 확산시키고 민주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2) 협력관계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의 전제

지역아동센터와 초등돌봄교실의 협력관계를 위한 전제 조건을 묻는 질문에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친밀감(28.0%), 관계자의 의지(27.6%), 제도적 장치(18.7%)라고 응답하였고, 초등돌봄교사들은 상대기관의 특성이나 입장 이해하기(27.3%), 사전정보공유(22.1%), 풍부한

자원 필요(19.5%)라고 응답하였다. 응답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중요한 것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나 초등돌봄교사들은 서로을 알고 이해하며 친밀감을 갖는 것이라고 응답한 것이다.

협력관계를 위한 정책의 실현과정이 자칫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이어서는 그 정책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알고 있다. 따라서 현장의 욕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서두르기보다는 천천히 서로에 대해 알기 위한 시간부터 친밀해지는 시간까지 기다릴 필요도 있겠다. 다만, 저절로 이러한 친밀감이나 신뢰감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워크숍이나 연수 과정에서 상대 기관이나 시설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 등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영한・강혜규・김보미・김태연 (2008). **소외계층 청소년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재인・이향란 (2002). **외국의 방과후 아동보육 제도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김홍원 (2012). **2010 방과후 학교 성과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보건복지부・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2012). 전국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보고서.

보건복지부 (2010). 2009보육통계.

이경구 (2007). 지역사회복지 연계협력체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영수 (2004).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영유아 보육에 관한 고찰.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엄기현 (2005). 한국 사회복지에서 가족책임주의의 양상과 국제비교.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여성가족부, 2011년 청소년백서.

여성가족부 (2013).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양정승 (2013).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정책”. 인재개발동향 HRD 이슈보고서 2013.3.25.

전재일 (2006). **사회복지개론.** 형설출판사.

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비투자 재정부문 사업으로서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 특성 및 현황.

한국교육개발원 (2009).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효율화 및 활성화 모델 개발 연구

Cigler, B. A. (2001). Multiorganizational, Multisector, and Multicommunity Organizations, in Getting

Results through Collaboration Mandell, M.P editde. Westport: Quorum Books.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2005). Extended schools: Access to opportunities and services for all.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2008). Extended schools: Testing the Delivery of the Core Offer in and Around Extended Shools, Final Report.

The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2006). Descriptive data on pre-school activities, school-age childcare, schools and adult education in Sweden.

http://www.afterschool.go.kr

The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2011). Facts and figures about pre-school activities, school-age childcare, schools and education in Sweden 2011.

The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2007). Quality in leisure-time centres.

ABSTRACT

A Study on the Collaborative Approach for Social Care for Children : Focused on the Case Studies of Children A Study on the Center for School Buildings and Regional Children Centers

Lee Hyang nan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 government's child care network system to implement pilot program in the process of the opinion of the site to suggest. To that end, 576 employees of the primary care workers and members of regional children center class people stand, conducted a survey. As a result of 98.0 percent of children cooperation is necessary response, which is intended to to discuss the matter is the purpose of the report. Cooperation, however, a 31.7 % and for close coordination of the entire organization is a body not only 11.4 percent of the total. These findings based on institutional improvements suggested.

Key words : Social care, Caring service, Regional Children Center

방과후아동지도연구
Korean Journal of After-School Child Education
2016. Vol. 13, No. 1, 59-77.

1세 영아를 위한 발달지원놀이 프로그램 개발 연구

노 희 연*

〈요 약〉

본 연구는 1세 영아의 주요 발달과업을 이해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 가능한 내용을 제안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1세 영아의 발달과 놀이에 관한 문헌을 검토하고 현장전문가와 이론전문가와 함께 1세 영아에게 중요한 발달과업과 지원내용을 선정하였다. 1세 영아를 위한 주요 발달과업으로 감각능력, 대소근육 발달, 자기인식 능력, 언어능력, 인지적 능력을 선정하였으며 각 영역별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활동을 구성하였다. 그러므로 본 프로그램의 목표는 감각능력, 대소근육 발달, 자기인식 능력, 언어능력, 인지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내용은 오감각 경험 제공을 통한 감각능력발달, 영아의 몸을 움직이는 경험과 다양한 교재교구를 다루어 보는 경험을 통해 신체 각 부분의 균형감각과 조절능력을 향상시키며, 1세 영아의 신체적 자아와 심리적 자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교사나 교재교구와 상호작용하며 다양한 어휘와 문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다양한 교재교구와 상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본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교수학습방법은 제시하기, 탐색하기, 놀이하기, 놀이 확장하기이며, 교사의 역할은 동기유발자, 상호작용자, 시범자, 촉진자, 관찰자, 평가자이며 평가는 교사 관찰을 통한 체크리스트, 일화기록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주제어 : 영아, 영아놀이, 영아발달

· 논문접수: 2016. 04. 28 / 수정본접수: 2016. 06. 28 / 게재승인: 2016. 07. 30
* 경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Ⅰ. 서 론

인간발달과정에 있어서 영아기는 가장 눈부신 발달을 이루는 시기이다(정옥분, 2012; 유효순 외, 2013). 신체, 사회성, 정서, 언어, 인지 영역 전반적으로 인간발달의 기초를 이루는 시기가 곧 영아기이다. 그래서 영아기의 건강한 발달과정은 곧 다음 시기의 발달을 예측할 수 있게 만들며, 그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아기 동안의 발달과정에 대한 지원이 잘 이루어질 때 이후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영아기 동안에도 개월 수에 따라 연령에 따라 그 발달이 급속도록 변하기 때문에 각 연령과 개월 수에 따른 발달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을 때 영아기 발달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2013년 1월에 고시된 제 3차 표준보육과정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영아의 연령별 보육과정의 내용을 구분하여 0-1세 보육과정과 2세 보육과정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영아보육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영아의 연령별 발달사항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이에 따른 교사역할과 관련 보육과정 내용도 제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3).

실제 어린이집에서 0세반, 1세반, 2세반과 같이 연령별 학급을 구성하고 각 연령의 발달에 따른 적합한 보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각 반에서도 개월 수에 따라 발달적 차이가 아주 큰 것이 영아반의 특성인데, 이는 교사가 영아들을 지원할 때 가장 어려운 점으로 알려져 있다(박정빈, 김은심, 유선희, 2010; 조혜경, 2010). 그래서 영아반을 운영할 때는 대, 소집단 활동보다는 주로 개별 활동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보건복지부, 2013).

그렇다면 어린이집에서 영아들을 적절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 영아들의 개별적 발달특성을 잘 이해해야 하며,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표준보육과정에서 영아를 위한 교육내용과 더불어 주제별 활동들을 제시하여 영아반 교사들의 영아반 운영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현장의 교사들은 자유놀이시간이나 일상에서 영아들의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놀이들에 대한 궁금증 또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옥주, 2012; 이윤영, 배지회, 2013).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토대로 최근 영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구성되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들의 동향을 살펴보면 내용과 대상면에서 아직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면, 적응, 그림책, 수학, 음악 등과 관련된 내용이 전부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영아의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또한 대상 연령도 영아들 중 가장 연령이 높은 2세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인 것을 볼 때 영아의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노희연, 2012).

특히 1세의 발달특성을 보면 신체발달 측면에서 걷기 등이 발달되면서 이동능력이 급격

하게 성장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탐색욕구와 결합되어 영아들의 움직임이 많아지고 신체운동능력이 많이 발달할 수 있는 시기이다. 인지발달 측면에서는 문제해결 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행동을 시도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는 과정을 많이 겪음으로써 문제해결력이 발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언어발달 측면에서는 폭발적인 어휘획득이 되는 시기로 이해언어와 표현언어 모두 급격하게 발달하는 시기이다. 사회정서발달 측면에서는 자아개념이 생기고, 공포와 불안 정서가 많아지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확장하려는 의도가 강한 시기이다(김보영 외, 2012; 정옥분, 2012).

1세 발달과업 중에서도 특히 이 시기에 민감하게 발달하는 영역을 보면 자아개념의 발달이다. 이 시기는 0세 시기에 양육자와의 공생관계에서 벗어나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고 이를 표현하려고 하는 시기로 자신의 신체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자신을 알고 드러내려고 한다. 더불어 1세는 언어적으로 단어와 문장을 표현하는 능력이 급속도로 발달해서 월령별로도 발달적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또한 탐색능력이 발달하면서 감각 활용의 기회가 더욱 많아지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해결을 시도하고 시행착오를 겪게 되며 이 때 강한 정서를 표출하기도 한다. 신체적으로는 대근육 뿐만 아니라 소근육의 발달이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된다(Charner, Murphy and Clark, 2010; Clouder and Nicole, 200; Masi and Leiderman, 2001; Miller and Gibbs, 2009; Silberg, 2001).

그렇다면 이렇게 결정적인 발달과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양육자의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더 1세 영아가 편안하고 원만하게 발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린이집에서 1세를 운영하는 교사들은 0세와 같은 의존적인 모습과 2세와 같은 자율적인 모습의 경계에 있는 1세 영아들의 혼란스런 모습을 보며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에 관해 고민이 많다(보건복지부, 2013).

교사들이 1세 시기의 민감한 발달영역을 잘 알고 이를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다면 영아의 발달은 좀 더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1세 영아들을 발달적인 측면에서 일과중에 자연스럽게 지원할 수 있는 놀이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크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는 바로 이와 같은 현장의 요구와 더불어 좀 더 1세 영아가 이 시기의 민감한 발달과업과 관련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세의 발달과업에 적절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구성을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세 영아를 위한 발달지원놀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무엇인가?
- 1세 영아를 위한 발달지원놀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무엇인가?
- 1세 영아를 위한 발달지원놀이 프로그램의 교수학습방법은 어떠한가?
- 1세 영아를 위한 발달지원놀이 프로그램의 교사역할은 무엇인가?
- 1세 영아를 위한 발달지원놀이 프로그램의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1세 영아의 발달내용과 지원

1) 1세 영아의 감각활용능력과 지원

감각능력은 출생때부터 잘 만들어진 상태이다. 그만큼 영아의 감각능력은 아주 뛰어나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와 관련된 경험을 한다면 오감각 활용능력은 좀 더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표준보육과정의 0-1세 보육과정이 신체운동영역에는 오감각 자극과 반응에 대한 내용이 있으며 이에 대해 교사가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교사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3).

Silberg(2001)는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활동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감각활용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다양한 소리를 접하고 같은 소리라고 해도 리듬이나 높낮이, 빠르기 등을 조정하여 들을 수 있는 경험을 제안하고 있다. Miller와 Gibbs(2009) 또한 오감각을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감을 제시하여 이를 활용한 오감각을 활용한 놀이를 제안하고 있다.

노희연(2012)은 특히 자연물을 이용하여 감각 탐색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오감각을 균형있게 활용하여 자연물을 탐색할 수 있는 활동을 제안한 바 있다.

이처럼 영아에게 있어 감각이란 신체운동발달 뿐만 아니라 인지발달과도 관련 되어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수단이다. 자신의 오감각을 충분히 활용하여 주변 세상을 관찰하고 탐색할 수 있다면 영아는 좀 더 세상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1세 영아의 대소근육 발달과 지원

1세 영아의 대근육 발달은 주로 서고 걷는 능력과 관련되어 있다. 더불어 몸의 균형을 잡는 것과 제자리 운동 등의 내용 등이 1세 영아 시기에 중요한 발달과업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표준보육과정에서도 신체운동 영역에서 1세 영아를 위한 몸의 균형과 조절, 몸의 움직임 시도, 제자리, 이동운동과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3).

1세 영아의 소근육 발달은 주로 손끝으로 잡는 동작과 관련이 있다. 0세 후반부터 영아는 점점 손가락을 활용하여 물건을 잡거나 조절을 하려고 하며, 1세에는 본격적으로 손끝을 활용한 놀이를 하게 된다. 예를 들면 손가락으로 길고 가는 물건을 집어올려 옮기거나 이러한 물건을 서랍 등과 같은 곳에 넣거나 빼거나 하며 놀이를 주로 하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놀이와 관련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Silberg(2001)와 Masi(2001)는 이와 관련하여 1세 영아에게 몸의 균형을 잡고 일어서고 앉고, 걷는 등의 신체활동 등을 제안하고 있으며, 소근육 발달을 위해서는 손으로 물건을 잡

아서 박스나 서랍 등에 넣고 빼는 놀이, 내지는 운반하고 쏟아 붓고 하는 등의 놀이를 제안하고 있다. 1세 영아는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하는 대신 시행착오가 많다는 점에서 반복연습의 형태로 활동을 진행하고 점점 놀이를 확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박찬옥 외(2011)는 영아를 위한 프로그램 중 특히 신체운동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1세 영아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몸의 균형을 유지하며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활동과 자신의 몸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 대근육 활동을 주로 제시하고 있다.

그 외에도 영아의 실외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이현경(2003)의 연구에서는 특히 걸음마기 영아들을 대상으로 구성하였는데, 18개월 정도의 영아들부터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의 놀이들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바깥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영아들의 대근육 발달에 좀 더 활기찬 자극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받을 점이 있다. 표준보육과정을 운영하면서 하루일과 계획을 운영할 때도 실내와 실외 놀이를 균형있게 구성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는데 이는 영아가 실내와 실외에서 다른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볼 때 신체 운동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외 놀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연구이다.

3) 1세 영아의 자기인식능력발달과 지원

1세 영아는 자아개념이 생기기 시작한다. 자아개념에는 신체적 자아와 심리적 자아가 있는데, 신체적 자아는 자시의 신체가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0세 시기는 양육자에 의존하여 자신과 양육자를 분화시켜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나 1세 정도 되면 영아는 자신과 양육자가 다른 존재이며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고 자신의 것을 인식하게 된다(Mahler, Pine & Bergman, 1975).

이 때부터 영아는 자신에 대한 인식을 하면서 거울과 같은 대상을 가지고 놀이를 하고 자신의 신체부위를 가리키는 놀이 등을 통해 자신의 몸이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거치게 된다.

더불어 심리적 자아란 남과는 다른 생각과 느낌을 가졌다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1세 영아가 '싫어', '안해' 라고 하는 등의 부정적 표현을 많이 하고 양육자의 도움을 거절하고 자신이 해보려고 하는 등의 특성은 바로 심리적 자아와 관련된 것이다. 이 시기에 영아는 남이 시키는대로 하기 싫어지기 때문이다. 자신의 행동은 자신만의 생각으로 하겠다는 심리적 자아가 발동하는 것이다(Kagan, 1981).

표준보육과정에서는 이 시기의 영아들을 위해 사회관계 영역에서 자신에 대한 이해 부분의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영아기 특히 1세 시기는 자신을 이해하는 시기로 협동과 양보,

배려 이전에 우선 자신에 대한 인식을 하는 시기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나의 이름과 나의 물건, 내 기분 등을 이해하는 시기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시기이다.

사실 1세 영아에 대한 사회 정서적인 접근을 한 프로그램은 거의 없으며 1세 영아의 적응프로그램(김지수, 2008) 연구에서 영아의 정서에 관한 내용을 약간 볼 수 있는 정도이다. 그 외에도 영아의 적응과정을 살펴 본 연구들(김현주, 2011; 최정선, 2013)에서 영아의 정서 발달과 관련된 내용을 엿볼 수 있는 정도이다.

표준보육과정 영아보육프로그램의 내용 중 '새로운 것이 낯설어요', '새로운 것도 좋아요' 주제 정도에서 또한 1세 영아의 자아인식과 관련된 내용을 약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1세 영아를 위한 자기 인식 개념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1세 영아기에 자신에 대한 인식을 잘해 나갈 때 더불어 양육자와 또래를 인식하고 관계를 맺는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연구와 지원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4) 1세 영아의 언어능력 발달과 지원

1세 시기의 언어발달과정을 보면 우선 한 단어에서 시작해서 점점 어휘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곧 문장을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표현 언어 이전에 이해언어는 훨씬 빨리 그리고 양적으로도 많이 발달한다.

표준보육과정에서는 1세 영아를 위해 의사소통영역에서 다양한 말소리와 짧은 책 등을 접하면서 듣기와 읽기에 대한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말하고 듣는 태도와 관련된 내용도 조금씩 다루고 있다.

Silberg(2001)는 1세 영아의 언어능력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주로 영아의 듣는 경험과 모방하며 말해볼 수 있는 경험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교사는 운율있는 짧은 말이나 글 등을 활용하고 영아는 교사의 말을 모방해보는 등의 활동을 통해 듣고 변별하는 능력과 발음해보는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는 변윤지(2012)의 연구에서 1세 영아의 상호작용에 관한 내용을 관찰 분석하여 영아의 발달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프로그램은 주로 그림책과 관련된 연구(김주아, 2008)가 대부분이며, 이것 또한 2세 영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1세 영아의 언어능력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1세 영아 시기는 언어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는 시기이다. 이러한 발달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이나 프로그램 등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5) 1세 영아의 인지적 능력 발달과 지원

1세 영아는 이동능력이 발달하고 더불어 탐색기회가 많아지면서 점점 세상에 대한 이해

를 넓혀나가는 시기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상에 대한 반복적인 탐색과 더불어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태도가 나타난다. 우선은 탐색방법을 변화시키고 다양한 방법으로 탐색을 시도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새로운 행동을 시도하고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져 자신의 호기심을 총 동원하여 이를 실험해보는 놀이특성도 보인다(김보영 외, 2012).

표준보육과정에서는 자연탐구영역이나 예술경험 등에서 탐색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자연탐구영역에서는 1세 영아들의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접근을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렇다면 1세 영아의 인지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탐색보다는 반복적으로 대상을 탐색하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Masi, 2001).

Charner, Murphy & Clark(2010)은 이러한 영아들을 위해 영아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놀이패턴을 분석하여 그와 같은 맥락에서 교재교구를 활용하여 놀이를 제공하고 영아가 새로운 각도에서 도전하고 시도해볼 수 있는 활동들을 제공하고 문제상황을 자극하여 해결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우선 영아의 수학적 경험을 관찰하고 분석하여 수학개념과 관련하여 평소에 영아가 좋아하는 놀이패턴으로부터 시작하는 활동들을 제안하는 연구(천혜경, 2009)가 있으며, 영아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수학적 경험을 질적으로 분석한 연구(임은화, 2007; 임수빈, 2013) 등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도 2세를 대상으로 한 연구여서 1세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얻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1세 영아들도 대상에 대한 예리한 관찰과 더불어 이를 분석하여 나름대로 새롭게 구성하고 조정해보는 시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로 그 과정에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게 되지만 이러한 경험이 쌓이면서 인지적 능력이 향상되므로 1세 영아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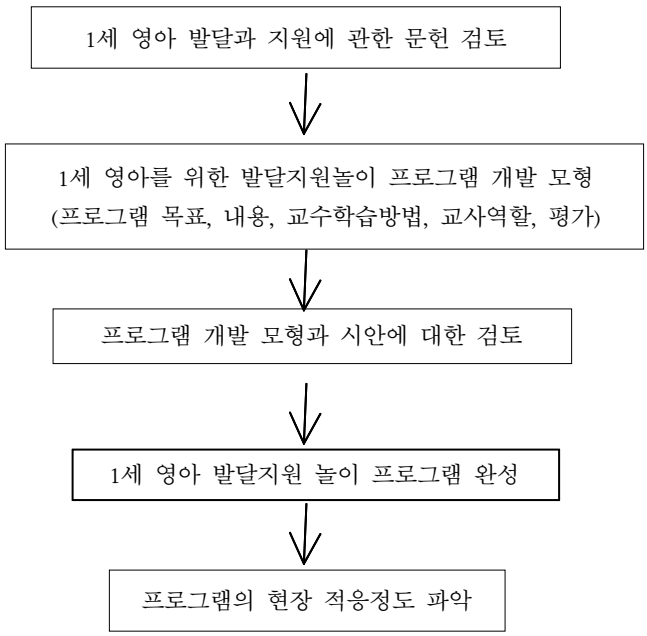
Ⅲ. 연구결과-프로그램 개발

1. 1세 영아를 위한 발달지원놀이 프로그램 개발절차

1세 영아를 위한 발달지원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우선 1세 영아의 발달과 놀이특성과 관련된 선행연구 및 문헌을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1세 영아들의 발달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특히 놀이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

고, 1세 영아의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놀이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1세들을 위한 활동이나 프로그램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좀 더 1세의 발달적 과업을 살펴볼 수 있고 이를 지원해줄 만한 타당성 있는 놀이를 알아보기 위해 주로 양육현장에서 잘 이해할 수 있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문헌들을 검토하였다. 이 중에서도 양육현장에 좀 더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놀이들을 되도록 많이 선정해낼 수 있기 위해 영아발달과 영아의 놀이와 관련된 다양한 문헌들을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문헌 검토 후 1세 영아를 위한 발달지원놀이 프로그램의 개발모형과 시안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현장전문가 3인과 이론전문가 2인과 함께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시안에서 특히 1세 영아를 위한 지원내용과 교수학습방법 측면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다. 1세의 발달과업은 다양하며 이 중에 어떠한 내용을 선정할 것인지와 이때 어떤 교수학습방법이 가장 적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였으며, 이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지원내용이 정해졌으며, 교수학습방법 또한 표준보육과정의 0-1세 보육과정에서 제시한 교수학습방법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프로그램의 현장 적용가능 정도를 파악하여 예비적용을 해 보았는데 우선 교사들의 검토를 받고 영아들에게 활동별 적용을 해 보았다. 이렇게 하여 최종적으로 본 프로그램이 완성되었다. 향 후 이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작업을 거쳐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프로그램 개발 과정

이를 통해 1세 영아를 위한 발달지원놀이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목표를 설정하였고, 1세 영아의 발달과업과 그에 적합한 놀이 내용을 선정하여 전문가에게 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받았다. 더불어 1세 영아의 발달에 적합한 교수학습방법을 선정하였는데, 이는 특히 제 3차 표준보육과정의 영아 프로그램의 교수학습방법을 참고로 하였다.

최종적으로 발달과업의 내용과 각 내용별 놀이를 선정하여 활동을 구성하고 계획안을 구성하여 현장의 교사들에게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받았다. 그 결과 교사들이 인식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1세 영아의 발달과업과 관련된 내용이 좀 더 첨가되었고, 이와 관련된 놀이도 수정 보완하였다. 결국 1세 영아의 폭넓은 발달과정 중에서 현장에서 중점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특정 발달과업을 선택하였으며, 이를 적절히 지원해줄 수 있는 놀이를 관련지어 활동을 구성하여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1) 목표

1세 영아를 위한 발달지원놀이 프로그램을 위한 목표는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영아보육프로그램'(보건복지부, 2013), 영아놀이와 관련된 선행연구(Charner, Murphy and Clark, 2010; Clouder and Nicole, 200; Masi and Leiderman, 2001; Miller and Gibbs, 2009; Silberg, 2001)의 내용을 토대로 정리하였다. 첫째, 발달지원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감각능력을 향상시킨다. 둘째, 발달지원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대소근육 발달을 도모한다. 셋째, 발달지원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인식 능력을 향상시킨다. 넷째, 발달지원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언어능력을 신장한다. 다섯째, 발달지원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인지적 능력을 향상시킨다.

2) 내용

(1) 1세 영아를 위한 발달지원놀이 프로그램의 내용 요소 추출

본 연구에서는 1세 영아를 위한 발달지원놀이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 현행(2013. 1 고시)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영아보육프로그램 중 특히 1세 발달과 활동 등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였고, 더불어 선행 연구(Charner, Murphy and Clark, 2010; Clouder and Nicole, 2008; Masi and Leiderman, 2001; Miller and Gibbs, 2009; Silberg, 2001)를 검토하여 1세를 영아를 위한 발달지원놀이 프로그램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1세 영아를 위한 발달지원놀이 프로그램의 최종 선정 내용을 정하였다. 1세 영아의 발달과정 중 1세에 민감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발달과업을 중심으로 감각능력, 대소근육 발달, 자기인식 능력, 언어능력, 인지적 능력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구성하였다. 우선 감각능력 향상을 위해 오감각 경험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놀이를 선정하였는데 특히, 시각과 청각 경험에 초점을 맞추었다. 둘째, 대소근육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영아의 몸을 움직이는 경험과 다양한 교재교구를 다루어 보는 경험을 통해 신체 각 부분의 균형감각과 조절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활동들로 구성하였다. 셋째, 자기인식능력 향상을 위해 1세 영아의 신체적 자아와 심리적 자아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넷째, 언어능력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사나 교재교구와 상호작용하며 다양한 어휘와 문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다섯째, 인지적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교재교구와 상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내용을 구성하였다.

(2) 활동내용 구성 및 선정

① 1세 영아의 발달과업 선정

본 연구에서는 1세 영아를 위한 발달지원놀이 프로그램를 개발하기 위해 1세 시기에 민감하게 발달하는 발달과업을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선행연구들(Charner, Murphy and Clark, 2010; Clouder and Nicole, 2008; Martin and Berke, 2007; Masi and Leiderman, 2001; Miller and Gibbs, 2009; Silberg, 2001)을 검토한 결과 감각능력, 대소근육발달, 자기인식능력, 언어능력, 인지적 능력을 주 발달영역으로 결정하였다. 선정과정에서 1세반을 운영하고 있는 교사 5인에게 1차적으로 검토를 부탁하고 영아들을 대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쳤다. 더불어 전문가 3인에게 문의하여 1세에게 이와 같은 발달과업이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적합성과 타당성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이들의 검증을 통해 최종 1세 영아의 발달지원을 위한 주요 발달영역을 선정하게 되었다.

② 활동내용

선정된 1세 영아의 주요 발달과업을 중심으로 활동을 선정하였다. 이 때 각 발달과업에 가장 적합한 활동을 구성하기 위해 선행연구(Charner, Murphy and Clark, 2010; Clouder and Nicole, 2008; Masi and Leiderman, 2001; Miller and Gibbs, 2009; Goldberg, 2001; Silberg, 2001)와 현장교사들의 의견을 검토하여 선정하였다. 1세 영아를 위한 발달지원 내용은 <표 1>과 같다.

이상에서처럼 1세 영아를 위한 발달지원놀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크게 감각능력발달, 대소근육발달, 자기인식능력 발달, 언어능력발달, 인지적능력 발달 영역으로 나누었으며 각 발달영역별로 활동을 제시하였다.

우선 감각능력발달 영역은 주로 청각, 시각, 촉각 능력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1세 영아들이 주로 이와 같은 감각을 활용하며 대상이나 주변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착안하였다. 그래서 이 영역은 대상에 대한 탐색과 조작 과정을 통해 자신의 감각기관을 좀 더 질적으로 활용하는 데 그 목표가 있다.

두 번째로 대소근육 발달 영역에서는 몸 전체를 움직이고 더불어 소근육을 통해 대상에 대한 조작을 가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영아는 자신의 대소근육을 다양하게

〈표 1〉 1세 영아의 주요 발달내용과 활동내용

1세 영아의 주요 발달 내용	관련활동
감각능력 발달	차차차(청각) 소리를 바꿔요! 소리내기 놀이는 재미있어요! 동물소리를 만들어요! 리듬을 만들어요! 색깔길을 찾아보아요! 노래을 들으며 찾아보아요!
대소근육 발달	곰돌이 기차 공을 굴려요! 찢어보아요! 넣고 꺼내기 쌓고 무너뜨리기 포개보아요! 쏟아부어요! 스티리폼 퍼즐 긁적거리기 게임
자기인식 능력 발달	여기 있네! 내 몸을 만져요! 내거예요! 거울 앞에 서요! 내 얼굴이예요! 내 사진이예요! 가족 앨범 내가 주인공!
언어능력 발달	말소리를 바꿔요! 병아리는 어디 있을까요? 손가락으로 가리켜 보아요! 꽃들과 이야기 해요! 꺼내서 말해봐요! 노래를 완성해요! 창문밖을 보아요! 손가락 이야기 전화해봐요! 자동차를 움직여요! 손인형으로 이야기해요!
인지적 능력 발달	상자에 넣어요! 서랍속에 무엇이 있나? 당겨보세요! 병에 담아보아요! 반대로 해보기 무엇인지 느껴보아요! 곰돌이는 어디 있을까? 공을 따라가요!

움직여보고 조절 능력을 기르는 데 목표를 두었다.

세 번째로 자기인식능력 영역에서는 1세 영아의 신체적 자아에 좀 더 초점을 두어 자신의 신체를 파악하고 자부심을 느끼게 하며 더불어 모든 활동에서 영아가 중심에 있을 수 있도록 하여 심리적 자아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네 번째로 언어능력 발달 영역에서는 주로 1세의 의사소통 내용 중 듣기와 말하기에 초점을 두었다. 다양한 대상과 상황에 대한 말을 듣고 이해하고 이를 말해 보는 기회를 통해 이해 언어와 표현언어의 균형적인 활용과 발달에 그 목표를 두었다.

마지막으로 인지능력 발달에서는 다양한 대상의 이름과 특성 파악을 위해 탐색을 하고 더불어 상황을 제시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주로 하여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표를 두었다.

이와 같은 영역별 내용을 토대로 활동들이 구성되었는데 실제 예로 하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실제 활동의 예

활동명	내 몸을 만져요!
활동목표	신체부위의 이름을 알고 가리킬 수 있다. 내 신체와 다른 신체와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한다.
활동자료	거울, 인형
활동방법	1. 영아와 함께 거울 앞에 앉는다. - 어디보자, 우리 oo가 여기 있네. 2. 영아의 신체부위를 가리켜 가며 함께 이야기 해본다. - 00이 머리가 여기에 있고, 00이 코는 여기에 있네. 3. 영아가 스스로 자신의 신체부위를 이해하고 짚어볼 수 있도록 한다. - 00 귀는 어디 있을까? - 00 손은 어디 있을까? 4. 신체부위에 대한 명칭을 듣고 인형에게 적용해본다. - 00야, 곰돌이 눈은 어디에 있을까?

3) 교수 학습방법

본 프로그램의 교수-학습방법은 '제 3차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영아보육프로그램'에서 제시한 탐색 및 놀이에 기초한 교수학습방법을 기초로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세 영아를 위한 발달지원놀이 프로그램의 교수학습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경우 모두 네 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첫 번째가 제시하기이며, 두 번째는 탐색하기, 세 번째는 놀이하기, 네 번째는 확장하기이다. 제시하기는 교사가 영아에게 적합한 놀이감이나 상황을 제시하고 이에

관심을 갖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이 때 영아가 관심과 흥미를 갖고 반응하는지 살피고 이를 토대로 활동자료의 수준이나 내용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탐색하기는 교사가 영아에게 제시한 놀이감이나 행동, 말 등을 영아가 좀 더 세밀하게 탐색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다. 영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되면 교사가 의도하는 놀이로 전이될 수 있도록 시범보이기 등을 통해 영아가 좀 더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놀이하기는 영아가 좀 더 자율적으로 교사가 제시하고 탐색을 유도한 놀이를 해보는 것이다. 이 때 교사는 영아의 놀이가 적극적이며 창의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 놀이 확장하기는 이전 놀이경험과 관련하여 비슷한 다른 대상이나 상황으로 자유롭게 확장하며 놀이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앞의 과정을 충분히 거친 영아는 좀 더 놀이 확장이 일어날 것이므로 교사는 지속적으로 영아에게 관심을 가지고 놀이가 영아에 의해 자율적으로 확장되고 격려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4) 교사역할

1세 영아를 위한 발달지원놀이 프로그램의 교사역할은 영아 놀이와 관련된 연구들(보건복지부, 2013; Charner, Murphy and Clark, 2010; Clouder and Nicole, 2008; Masi and Leiderman, 2001; Miller and Gibbs, 2009; Silberg, 2001)에서 추출한 교사역할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기초로 1세 영아를 위한 발달지원놀이 프로그램의 교사 역할은 교수학습방법인 제안하기, 탐색하기, 놀이하기, 놀이확장하기를 위해 동기유발자, 상호작용자, 촉진자, 시범자, 관찰자, 평가자로 선정하였다(노희연, 2012;. 교사는 놀이감과 놀이상황을 제공하여 영아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동기유발자의 역할을 하며, 교사가 의도한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는 적절한 상호작용을 하며, 교사 자신이 직접 놀이를 하는 시범을 보이며 영아들의 활동을 촉진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5) 평가

1세 영아를 위한 발달지원놀이 프로그램의 평가는 계획된 프로그램의 목표와 프로그램 실행 후의 결과와 일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하여 영아들의 놀이와 행동에 대한 교사 평가로 주로 이루어질 것이며, 일화기록을 주로 활용할 것이다. 교사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응들을 관찰하고 활동의 목표달성, 교육내용의 적합정도, 영아의 발달에 적합한 정도, 영아들의 관심정도에 대한 평가를 주로 하게 된다. 더불어 프로그램의 내용 중에 각 영역별로 그 목표를 달성하였는지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의 효율성 정도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게 된다.

본 연구는 프로그램 개발이 목표이므로 예비적용 까지만 해보았고 앞으로 이러한 평가방

법을 활용한 본격적인 프로그램 적용이 이루어질 것이다.

2. 1세 영아를 위한 발달지원놀이 프로그램 개발안

〈표 3〉 1세 영아 발달지원놀이 프로그램 개발안

구분	내용
목표	- 발달지원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감각능력을 향상시킨다. - 발달지원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대소근육 발달을 도모한다. - 발달지원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인식 능력을 향상시킨다. - 발달지원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언어능력을 신장한다. - 발달지원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인지적 능력을 향상시킨다.
내용	- 감각능력향상: 오감각 경험 제공 - 대소근육 발달: 영아의 몸을 움직이는 경험과 다양한 교재교 구를 다루어 보는 경험을 통해 신체 각 부분의 균형감각과 조절능력을 향상 - 자기인식 능력 신장: 1세 영아의 신체적 자아와 심리적 자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 - 언어능력 신장: 교사나 교재교구와 상호작용하며 다양한 어휘와 문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 - 인지적 능력 향상: 다양한 교재교구와 상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교수학습방법	- 제시하기 - 탐색하기 - 놀이하기 - 놀이 확장하기
교사역할	- 동기유발자: 자료제공과 환경구성을 통한 동기유발 - 상호작용자: 모방과 반복을 격려하는 상호작용 - 시범자: 영아들의 모방을 유도하는 시범보이기 - 촉진자: 행동과 말을 관련하여 보여줌으로써 영아들의 적극적인 참여 촉진 - 관찰자: 영아들의 활동 참여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 평가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영아들의 다양한 활동과정에 대한 평가
평가	- 영아들의 놀이과정에 대한 교사관찰을 통해 프로그램의 효율성 평가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1세 영아의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1세 영아들의 발달을 이해하고 특시 이 시기에 민감하게 발달하는 발달과업을 중심으로 놀이를 통해 지원하여 1세 영아의 감각능력, 자기개념, 언어능력, 대소근육, 인지적 능력을 향상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른 결과를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1세 영아의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놀이 프로그램의 구성에 목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프로그램의 목표, 내용, 교수학습방법, 교사역할, 평가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우선 목표와 내용을 보면 발달지원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감각능력을 기르고, 대소근육 발달을 도모하며, 자기인식능력을 기르고, 언어능력을 향상시키며, 인지적 능력도 향상시키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러한 목표는 선행연구들(보건복지부, 2013; Charner, Murphy and Clark, 2010; Clouder and Nicole, 2008; Masi and Leiderman, 2001; Miller and Gibbs, 2009; Silberg, 2001)에서 제시한 1세 시기의 발달과업 중 특히 민감한 영역을 중심으로 선정한 것이며, 기타 다른 문헌(정옥분, 2012; 유효순, 2013)에서도 이러한 발달과업에 대한 언급을 볼 수 있다. 물론 모든 발달영역을 골고루 지원해야 하겠지만 특히 이 시기가 민감한 시기로 작용하는 발달과업들은 교사들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좀 더 1세만의 특성에 초점으르 둔 목표를 선정하였다. 그리하여 오감각 경험을 제공하여 감각능력을 향상시키고, 몸움직임 경험과 다양한 대상을 다루어 보는 경험을 통해 신체 균형감각과 조절능력 향상을 도모하였다. 더불어 1세 영아의 자기인식능력을 신강하고자 하였으며 다양한 어휘와 문자을 접해볼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언어능력 시장을 도모하였고, 다양한 대상과 상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Silberg(2001)는 현장에서 활용한 다양한 놀이들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더 많은 발달과업을 선정하였고 연령구분도 6개월 단위로 하여 좀 더 세밀하게 활동을 구성하였다. 앞으로는 영아의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선행연구와 같이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교수학습방법으로 제시하기, 탐색하기, 놀이하기, 놀이확장하기를 제시하여 영아의 놀이가 좀 더 확장되고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는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어린이집 영아보육프로그램에서 제시한 교수학습방법으로, 1세 영아들에게 가장 적합한 것으로 생각되어 선정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교수학습방법은 영아들을 위해 종종 쓰이는 것으로 탐색과 시도를 좋아하는 1세 영아들에게 반복해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하여 감각활용에 집중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때 특히 반복과 모방 전략을 많이 활용하였는데 1세 영아에게 적합한 교수학습방법으로 박찬옥 외(2010)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교수학습전략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세 번째로 교사의 역할로는 '동기유발자', '상호작용자', '시범자', '촉진자', '관찰자', '평가자'로 하여 영아에 대한 발달을 관찰하고 평가하여 이를 촉진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고, 특히 영아들의 동기유발들 위해 시범을 보이고 적절한 상호작용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조혜경, 2010; 박찬옥 외, 2010)에서도 영아를 지원하기 위하 교사의 역할로 영아의 발달을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이에 적합한 활동을 구성하여 영아의 동기를 유발하고 영아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잇도록 촉진하는 교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본 연구는 이와 잘 부합된 교사역할을 제시한 것이다.

네 번째, 평가부분은 교사가 영아의 놀이과정을 관찰하고 이를 기록하여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검토하였다. 특히 일화기록을 활용하여 영아들을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하고 본 프로그램을 잘 활용할 경우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평가와 관련된 문헌(임부연, 오정희, 2011)을 보면 영아와 관련된 다양한 평가형태를 제안하고 있지만 프로그램으로 인한 영아의 변화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화기록을 통한 평가가 좀 더 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었다.

더불어 본 연구와 같은 영아 프로그램을 선행연구(보건복지부, 2013; Charner, Murphy and Clark, 2010; Clouder and Nicole, 2008; Masi and Leiderman, 2001; Miller and Gibbs, 2009; Silberg, 2001)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전 연령의 발달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연령과 관련된 좀 더 세밀화된 내용구성을 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다른점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각 연령별, 특히 월령별 발달적 특성이 다른 영아들을 대상으로 보육과정을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그리고 자유놀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영아들을 평가하고 이에 적합한 놀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특정연령과 관련된 구체적인 실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본 연구를 통해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영아들의 연령별, 월령별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특정 시기에 민감한 발달내용을 중심으로 교사가 현장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한다. 본 연구자도 후속 연구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영아를 위한 프로그램을 계속 구성하려고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영아반 교사들 또한 영아를 좀 더 잘 이해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놀이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인식을 깊이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누구나 다 하는 활동을 가져다 쓰는 식의 학급운영이 아니라 그 학급의 영아가 가장 민감하게 발달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이를 즐겁게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으로서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 본 연구이다. 그래서 본 연구가 어린이집 영아반 교사들에게 잘 이해되고 활용되어 1세반 영아들이 좀 더 자신의 발달에 적합한 지원을 받았으면 한다.

참고문헌

김보영, 이창수, 임현숙, 오경숙, 이소영 (2012). **영아보육전문교육과정.** 공동체: 서울

김옥주 (2010). 영아반 초임교사의 직무수행을 돕는 교사교육 프로그램 모형 개발. 신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지수 (2008). 만 1세 영아 보육시설 초기 적응 프로그램에 관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현주 (2011). 보육시설 적응프로그램의 개별실시에서 나타난 영아의 적응과정.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노희연 (2012). 자연물을 이용한 영아감각탐색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한국영유아보육학, 72집,** 127-151.

박정빈, 김은심, 유선희 (2010). 영아반 교사가 직면하는 어려움. **변형유아교육연구, 4**(2), 65-82.

박찬옥, 구수연, 이옥임 (2010). **영아-교사 상호작용의 이론과 실제.** 파주: 정민사.

보건복지부 (2013).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영아보육프로그램 1.** 서울: 경성문화사

보건복지부 (2013).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영아보육프로그램 2.** 서울: 경성문화사

보건복지부 (2013).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영아보육프로그램 운영의 이해.** 서울: 경성문화사

유효순, 원혜경, 김정희 (2013). **영아발달**. 창지사: 서울

이윤영, 배지회 (2013). 영아반 교사들이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와 기대 및 요구. **아동교육, 22**(2), 201-224.

이현경 (2003). 걸음마기 영아의 실외놀이 프로그램 개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임수빈 (2013). 2세 영아의 쌓기놀이에서 나타나는 비형식적 수학경험.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임은화 (2007). 만 2세 영아의 어린이집에서의 일상적 수학경험과 수학개념이해에 관한 탐색.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임부연, 오정희 (2011). **영유아 교수, 학습방법.** 동문사; 서울

최정선 (2013). 12-14개월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적응 과정에 대한 탐색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옥분 (2012). **영아발달.** 학지사: 서울

조혜경 (2010). 어린이집 영아반 교사의 지도방법에 대한 연구. **아동연구, 19**(1), 83-95.

천혜경 (2009). 영아 수학적 탐색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만 2세 영아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Charner, K., Murphy, M, and Clark, C. (2010). *The encyclopedia of infant and toddler activities.* MD: Gryphone House

Clouder, C., and Nicole, J. (2008). *Creative play for your toddler.* New York: Sterling Publishing Co.

Kagan, J. (1981). *The second yea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Mahler, M. S., Pine F., & Bergman A. (1975). **유아의 심리적 탄생***(The psychological birth of the human infant).* 이재훈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Martin, S, and Berke, J. (2007). *See how they grow: Infant and toddlers.* New York: Thomson Delmar Learning.

Masi, W. S, and Leiderman, R. C. (2001). *Baby play.* Creative Publishing ntrenational.

Masi, W. S, and Leiderman, R. C. (2001). *Toddler play.* Creative Publishing intrenational.

Miller, L. G, and Gibbs, M. J. (2009) *Making toys for infants & toddlers.* MD: Gryphon House.

Silberg, J. (2001). *Games to play with Babies.* MD: Gryphone House.

Silberg, J. (2001). *Games to play with Toddlers.* MD: Gryphone House.

ABSTRACT

Development of play program for supporting one-year-old infant development

Noh, Hee-Yeon

The propose of this proram is Develop play program for supporting one-year-old infant development. The researcher organized educational goals, contents methods, supporting systems, and evaluation of this program.

The goal of this program is to support one -year -old infant development with various plays. The contents of this program are consist of sensory skills, self awareness, large motor skills, fine motor skills, cognitive skills and language skills. The Teaching-learning method of this program is imitation and repetition. The teacher interact, observe and motivate infants in this program. The evaluation method is the checklist and recording through the observation.

Key words : toddler, toddler play, toddler development

방과후아동지도연구
Korean Journal of After-School Child Education
2016. Vol. 13, No. 1, 79-98.

초등돌봄 연구 경향 분석

노 성 향*

〈요 약〉

본 연구에서는 2004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주도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초등돌봄에 대한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초등돌봄정책에 대한 단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돌봄교실에 대해 연구한 123편의 학술지와 학위논문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초등돌봄에 대한 연구는 운영실태와 인식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았으나, 돌봄교실안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나 비교연구는 많지 않았다. 초등돌봄교실이 아동에게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는 주로 아동의 사회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아동의 연령이 고학년으로 확대되면서 프로그램 효과 또한 다양하게 연구되어야 한다. 초등돌봄전담사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초등돌봄전담사의 직무만족도와 연계된 연구가 많았는데, 초등돌봄교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수·학습 지도방법, 운영모형개발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초등돌봄전담사의 자격, 선발, 평가, 처우 등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한다.

주제어 : 초등돌봄교실, 연구경향, 방과후학교

· 논문접수: 2016. 04. 28 / 수정본접수: 2016. 06. 28 / 게재승인: 2016. 07. 30
* 대구대학교 가정복지학과 조교수

Ⅰ. 서 론

초등돌봄은 1970~80년대 민간의 주도로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 시간이나 방학동안 돌봄을 제공하던 공부방을 시작으로 1990년대에는 공부방 뿐 아니라 어린이집, 사회복지관 등에서 방과후 아동지도, 방과후 보육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었다. 방과후 아동지도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정규교육 기관에서의 일과시간 이외의 시간(학교 수업을 마친 후, 방학중, 학교 시작 전, 휴일)동안에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전한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도모하며 학업 성취능력을 향상시키고 가정과 같은 안락함을 제공해 주는 것을 말한다(이옥・노성향, 1996). 민간이 주도하여 이루어지던 초등학생에 대한 방과후 돌봄 및 지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부터이다. 2000년대 초반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초등학교 학생 방과후 지도 및 보호를 위한 학교내 방과후 교실이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4년을 기점으로 교육의 양극화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 그리고 저출산과 맞물린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유휴교실 활용을 목적으로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권장하게 되었다. 초등돌봄은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방치되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 혹은 방학 중에 안전하게 보호, 지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2004년 「초등 저학년 방과후 교실」이라는 방과후 교육활동 프로그램의 하나로 도입 및 시범 운영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2006년에는 기존의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교실, 수준별 보충학습을 '방과후학교'로 통합하였으며, 방과후 교실이 초등보육프로그램(현, 초등돌봄교실)으로 불렸고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다. 2010년에는 기존 방과후 교실에 저녁 시간을 연장한 종일돌봄이, 2011년부터 2013년 까지는 종일돌봄에 아침 돌봄을 추가한 엄마품온종일 돌봄 운영이 확대되었다(교육부, 2016). 교육부에서는 정규수업 외 시간에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내 돌봄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2014년부터는 초등학교 1~2학년 중 희망하는 학생을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오후 돌봄(방과후~17:00)뿐만 아니라 저녁 돌봄(17:00~22:00)까지 추가 실시하였다. 2016년에는 돌봄교실 입소대상 아동을 초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방과후 아동지도의 필요성은 무엇보다 방과후 시간에 성인의 돌봄을 받을 수 없는 학령기 아동의 보호차원에서 제기되었으나 영유아에 대한 보육지원의 확대에도 경력단절 여성이 발생하자 영유아 뿐 아니라 학령기 자녀를 둔 여성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도 그 필요성이 강조된다. 여성가족부에서 전국 5,018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5가족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과후 1시간 이상 홀로 방치된 초등학생, 자기보호 아동의 비율은 37% 정도로 나타났다. 가족 구성 형태에 따라 시간별 나홀로 아동의 비율은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방과후 3시간 이상을 혼자 보내고 있는 초등학생의 비율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한부

모+자녀 가정(38.4%), 부부+자녀 가정(8.5%), 부부+양친+자녀 가정(7.9%)의 순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한부모가족의 경우 자녀 돌봄 공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6).

학령기 자녀의 돌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비싼 사교육비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와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방과후 아동지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점차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게 되지 초등돌봄 참여율도 크게 증가하였다. 2004년 '방과후 교실'로 시작된 이후 2015년까지의 초등돌봄교실 참여 학교 수, 교실 수 및 학생 수를 '오후돌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2004년에는 337개교, 445개 교실, 8천 명가량이 초등돌봄교실에 참여하였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그 참여 비율이 증가하여 2015년에는 5,972개교, 10,966개 교실, 24만 명으로 양적인 측면에서 크게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초등돌봄교실은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16년 현재 초등돌봄교실은 대상이 초등학교 전학년으로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학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및 안전관련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학생의 창의성과 인성을 함양한다(교육부, 2016).

초등돌봄은 크게 1991년~ 2000년대초 공부방, 어린이집, 사회복지관에서 제공된 방과후 아동지도와 2004년 이후 초등학교에서 제공되고 있는 초등돌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초등돌봄이 초등학교에서 제공되기 이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회복지관이나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던 방과후 아동지도는 2004년 초등학교에서 초등돌봄이 제공되면서 서서히 줄어들어, 2015년 말 현재 43,000여개소의 어린이집 중 353개소에서 3,159명의 초등학생이 돌봄을 받고 있다. 방과후아동지도가 운영되었던 1990년대부터 2000년 초반까지 방과후 아동지도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방과후 아동지도 연구 경향에 대한 분석 또한 연구된 바 있다. 2004년 이후부터 어린이집,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되던 방과후아동지도가 초등학교의 초등돌봄으로 전환되면서 초등돌봄에 대해서도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초등돌봄에 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여 정리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그동안의 초등돌봄 관련 연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연구과정 및 결과에서 논의된 과제와 제안점을 재정리하면 초등돌봄의 질적수준 향상과 추후의 연구 및 정책 입안에 대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되어 온 국내의 초등돌봄과 관련된 연구의 경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04년 초등돌봄교실이 도입·시범운영된 이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되어 온 국내의 초등돌봄 관련 연구물 중 학술지와 학위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한국학술정보(KISS), 누리미디어(DBPIA), 교보문고 스콜라 학술연구정보화시스템을 통해 수집하였고, 검색주제어는 '초등', '학령기', '초등돌봄', '방과후 교실' 등이고 연구물관련 문헌 목록은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학술지 논문 40편, 학위논문 83편 총 123편의 논문이 분석되었다.

〈표 1〉 초등돌봄 관련 주요 문헌 목록

국내학술지	교육과학연구, 교육문화연구, 방과후아동지도연구, 아동교육, 아동학회지, 아시아아동복지연구, 열린교육연구, 육아지원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한국교육문제연구, 한국보육학회지, 한국사회정책, 한국일본교육학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초등교육, 각 대학에서 발행하는 논집
학위논문	'초등', '학령기', '초등돌봄', '방과후 교실' 등이 포함된 연구제목을 가진 각 대학의 석사학위 논문과 박사학위논문

2. 분석기준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노성향, 2004)와 교육부의 초등돌봄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8개의 주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주제는 초등돌봄 교실 이용에 대한 실태·인식·만족도조사에 관한 연구, 초등돌봄교실 이용자 대상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연구, 초등돌봄교실 현황(환경, 급식, 예산)에 관한 연구,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 개발 연구, 초등돌봄교실 경험과 아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초등돌봄전담사(돌봄전담강사)에 관한 연구, 초등돌봄에 관한 비교 연구, 초등돌봄교실 평가·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모두 8개로 구성되었다.

Ⅲ. 연구경향 분석

분석 대상 논문 123편을 주제별로 나누면 초등돌봄 교실 이용에 대한 실태·인식·만족도조사에 관한 연구(36편), 초등돌봄교실 이용자 대상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연구(13편), 초

등돌봄교실 현황(환경, 급식, 예산)에 관한 연구(4편),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 개발 연구(0편), 초등돌봄교실 경험과 아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20편), 초등돌봄전담사(돌봄전담강사)에 관한 연구(17편), 초등돌봄에 관한 비교 연구(7편), 초등돌봄교실 평가・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26편)로 나누어지고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초등돌봄교실 이용에 대한 실태・인식・만족도조사에 관한 연구

초등돌봄교실 이용실태, 학부모의 인식이나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연구 중 가장 많이 연구된 주제이다.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 실태분석과 활성화를 위한 연구(권영심, 2005),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위한 교내 방과후 교실 운영 방안 탐색(류방란, 2004),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교실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엄현경, 2007),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의 실태분석(이혜진, 2011), 초등돌봄교실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직영과 사회적 위탁 운영비교를 중심으로(양윤이・이태연, 2013) 등이 있다.

초등돌봄교실의 운영실태에 대한 연구는 2004년 초등학교에서 방과후교실 운영이 시작되면서부터 연구가 진행되었고, 직영운영과 사회적 기업에 의한 위탁운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최근까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초등돌봄교실의 운영실태를 살펴본 연구들은 초등돌봄교실 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졌다. 야간 방과후 아동보육의 실태 및 부모 만족도 조사 연구(김윤정, 2008), 아동의 방과후 생활실태 및 방과후 교실에 대한 수요 조사 연구(공계자, 2009), 초등돌봄교실 운영 실태와 업무 담당자의 인식 분석(김민정, 2015) 등이 있다. 초등돌봄교실이 운영된지 10년 이상 지났지만 운영 실태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은, 초등돌봄교실의 이용대상이 2013년 이후부터 확대되어 운영되기 때문이다.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초등돌봄교실의 이용대상은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교 1,2학년이 주를 이루었지만, 2013년 이후 정부에서 점차적으로 이용대상의 연령을 확대하여 2016년에는 초등학교 전학년이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게 하였다. 초등학교 전학년을 돌봄교실에서 돌보기 위해서는 초등학생의 연령에 따른 물리적 공간과 전문적인 돌봄전담강사, 초등학생의 발달수준 적합한 프로그램 등이 제공되어야 되므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여진다. 실태조사 연구를 통해 제시된 제안점을 적용하면 연령수준, 지역특성을 고려한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모형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연구

초등돌봄교실에서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으로 신체활동, 건강증진활동, 로봇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한 뒤 아동이나 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연구였다(김중형・백종수, 2014; 이예훈・권민정, 2015).

이들 연구들은 초등돌봄교실에서 돌봄만을 제공하는 것보다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요구나 인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아동은 부모가 맞벌이라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오랜시간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돌봄교실에서 보다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초등학생의 학년이 전학년으로 확대되어 운영되면서 부모의 사회계층이나 지역적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다를수 있으므로,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은 보다 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어 한다.

3. 초등돌봄교실 현황(환경, 급식, 예산)에 관한 연구

초등돌봄교실 현황에 대한 연구는 환경(구민정, 2005; 조진일, 2015), 급식(신대철, 2011), 예산(이유경, 2013)에 대한 연구가 있다. 초등돌봄교실은 초등학교의 빈교실을 돌봄교실을 운영하기에 적절하게 리모델링한 이후 사용하기 때문에 물리적 환경에 대한 연구는 돌봄교실 공간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조사나 공간이용 실태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초등돌봄교실의 급식이나 예산 또한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운영지침에 의해 획일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지만, 초등학교라고 해도 지역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지역사회자원이 다르고, 방학 중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급식지원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4.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 개발 연구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은 학교수업의 연장이 아니고, 휴식활동만으로 구성되어 있지도 않은 돌봄교실만의 프로그램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은 학교장이나 돌봄교실 담당 교사의 운영철학에 따라 특별활동중심 프로그램, 보호중심 프로그램, 학습중심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진다. 일반적으로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은 돌봄교실 내에서 보호, 숙제지도, 특별활동이 운영되고 학교의 특기적성교실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이 운영되기도 한다. 돌봄교실내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은, 초등돌봄강사의 역량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될수 있으므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수교육을 통해 초등돌봄강사를 훈련하면 보다 풍성한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다. 그러나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아직까지 초등돌봄전담강사가 직접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는 없다.

초등돌봄교실의 프로그램은 학기초에는 놀이와 보호위주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학기중과 방학중에는 방과후 특기적성프로그램과 연계하지만, 돌봄교실내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진행되어야 한다. 초등돌봄교실의 다양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초등돌봄전담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시범운영되며 교육을 통해 보급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동시에 고학년 아동의 경우 초등돌봄교실에 머무는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운영모델도 개발하여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을 특성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5. 초등돌봄교실 경험과 아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초등돌봄과 아동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초등돌봄교실 이용경험이 아동의 자아존중감, 사회성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김경미, 2010; 김관순, 2011; 김동국, 2007; 김명자, 2010; 김영은, 2009; 박경남, 2014; 왕지영, 2014; 이용선, 2016; 정예리・이종은, 2008; 최명희, 2004). 그 다음은 초등돌봄교실 이용 경험이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김영자, 2015; 노성향・이윤경, 2004; 이문숙・이소연, 2007),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김애희・최외선・박인전, 2012; 김정원・이정아・이인경, 2009)순으로 나타났다. 최근까지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아동은 맞벌이 가정이나 저소득 가정이 많았기 때문에 초등돌봄교실 이용 경험과 자아존중감, 사회성, 학업성취, 스트레스 등을 연계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아동이 모든 계층의 모든 초등학생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추후의 연구에서는 초등돌봄교실의 효과를 보다 더 포괄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6. 초등돌봄전담사(돌봄전담강사)에 관한 연구

초등돌봄전담사에 관한 연구는 돌봄전담사의 직무만족도와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김민정, 2015; 백현순,2015; 성혜영, 2016; 신나영, 2009; 신영은, 2010; 오시영・전주성, 2016; 조윤숙, 2013), 직무현황(고용형태, 노동)에 대한 연구(김정덕, 2010; 김현미, 2016; 서영숙・박진옥・노성향, 2014; 정미경, 2016)와 초등돌봄전담사의 안전에 대한 지식(공미화, 2012) 등의 연구가 있었다. 초등돌봄전담사의 직무만족도와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초등돌봄전담사는 대부분 대졸이상의 고학력자이고 보육교사나 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이 있는 전문가이지만 고용이 불안정하고 돌봄교실 운영시 독립적인 운영을 할 수가 없고 방과후학교 담당 학교교사의 업무지시를 받아야 하는 등 근무여건이 좋지 못하다. 이뿐 아니라 근무시간이 불안정하고 전문가임에도 직무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처우개

선에 대한 요구가 많다. 아직까지 초등돌봄전담사라는 명칭이 초등돌봄강사, 돌봄교사, 돌봄전담사 등 제각각이라 명칭에 대한 통일도 필요하다.

초등돌봄교실의 질적 수준에 대한 논의는 초등돌봄전담사의 안정적인 처우와 높은 직무만족도와 정적관계가 있으므로 초등돌봄교실을 담당하는 교사가 전문적인 초등돌봄지도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7. 초등돌봄에 관한 비교 연구

초등돌봄에 관한 비교 연구는 제도의 도입부터 시행까지 외국의 사례와 국내의 초등돌봄교실 사례를 비교한 연구로 대부분 일본의 방과후아동지도 시스템과 비교한 연구가 많았다(김수동, 2013; 김수동・양애경, 2014; 이성한, 2012). 이 외에도 도시와 농촌 지역 간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만족도 차이에 관한 연구(이회자, 2007), 초등 농산어촌지역 연중돌봄학교와 일반학교 돌봄교실김경미, 2010) 등의 집단 간의 만족도 비교연구가 이루어졌다.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외국의 사례는 미국의 경우 공인받은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고, 독일은 방과후 보육을 담당하는 호르트교사와 초등학교 교사와의 협력이 잘되어 있으며, 스웨덴의 경우 초등학교안에 통합방과후 프로그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등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외국의 다양한 사례와 우리나라의 초등돌봄교실을 비교하여 운영모형, 담당교사, 프로그램, 평가 등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8. 초등돌봄교실 평가・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초등돌봄교실이 초등학교 안에서 운영된 역사가 짧기 때문에 초등돌봄교실의 질적수준에 대한 연구가 그리 많지 않지만 평가와 활성화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질적수준 향상 방안을 논하고 있다.

평가에 관한 연구는 인천 방과후 보육 정책 현황 및 평가 연구(이지영, 2006),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평가준거 및 도구 개발(임현성, 2007), 초등돌봄교실 자체평가지표 탐색(최진아, 2016)등이 있고, 활성화방안에 대한 연구는 지역사회돌봄네트워크 개발(김영란・황정임, 2011), 방과후 돌봄서비스 정책의 효과적 집행에 관한 연구(신동석, 2015), 초등학교 방과후교실의 기능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전영희, 2007), 방과후서비스 간 협력체계에 대한 초등돌봄 입장(조은경, 2014) 등의 연구가 있다.

초등돌봄교실 평가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에서는 초등돌봄교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교사 1인당 25명의 아동, 초등돌봄전담사의 전문성 확보 및 처우, 운영시간의 효율적

운영, 초등돌봄전담사 순환배치, 돌봄전담사 인력풀 구성,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컨설팅 강화, 학년을 고려한 운영프로그램 등 논의가 되어야 할 주제가 많다. 추후 연구들에서 초등돌봄교실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다 다양한 접근이 진행되어야 한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이 운영되기 시작한 2004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국내에서 진행되어 온 초등돌봄교실과 관련된 연구의 경향을 분석하여 추후의 연구 및 정책 입안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석 대상 논문 123편은 주제에 따라 나누어 보면, 초등돌봄 교실 이용에 대한 실태・인식・만족도조사에 관한 연구(36편), 초등돌봄교실 이용자 대상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연구(13편), 초등돌봄교실 현황(환경, 급식, 예산)에 관한 연구(4편),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 개발 연구(0편), 초등돌봄교실 경험과 아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20편), 초등돌봄전담사(돌봄전담강사)에 관한 연구(17편), 초등돌봄에 관한 비교 연구(7편), 초등돌봄교실 평가・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26편)로 나누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결론을 제시하고 제언을 하고자 한다.

초등돌봄에 관한 연구는 초등돌봄 교실 이용에 대한 실태・인식・만족도조사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초등돌봄교실 평가・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초등돌봄과 아동과의 관계순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통해 운영실태와 만족도 연구를 통해 초등돌봄교실의 활성화 방안이 도출되어 초등돌봄교실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아동발달에도 도움을 주고 있었다. 그러나 2013년 이후부터 초등돌봄교실의 이용대상이 확대되면서 2016년 현재에는 초등학교 전학년이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게 되면서, 학년에 적합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연구들이 추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초등학생의 연령에 따른 물리적 공간과 초등돌봄전담사 대 아동수, 전문적인 돌봄전담사,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실태조사 연구를 통해 제시된 제안점을 적용하여 연령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초등돌봄교실 운영모형을 만들어보는 것도 필요하다.

2. 초등돌봄교실에서 돌봄만을 제공하는 것보다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요구나 인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아동은 부모가 맞벌이라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오랜시간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돌봄교실에서 보다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초등학생의 학년이 전학년으로 확대되어 운영되면서 부모의 사회계층이나 지역적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다를수 있으므로,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은 보다 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어 한다.

3. 초등돌봄교실내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은, 초등돌봄강사의 역량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될수 있지만 선행연구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초등돌봄교실의 프로그램은 학기초에는 놀이와 보호위주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학기중과 방학중에는 방과후 특기적성프로그램과 연계하지만, 돌봄교실내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진행되어야 한다. 초등돌봄교실의 다양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초등돌봄전담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시범운영되며 교육을 통해 보급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동시에 고학년 아동의 경우 초등돌봄교실에 머무는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운영모델도 개발하여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을 특성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4. 초등돌봄교실과 아동발달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최근까지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아동은 맞벌이 가정이나 저소득 가정이 많았기 때문에 초등돌봄교실 이용 경험과 자아존중감, 사회성, 학업성취, 스트레스 등을 연계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아동의 연령과 계층이 다양해지면서 추후의 연구에서는 초등돌봄교실의 효과를 보다 더 포괄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5. 초등돌봄전담사에 관한 연구는 지도사의 전문성과 전담사의 직무 만족도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초등돌봄전담사의 직무만족도와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초등돌봄전담사는 대부분 대졸이상의 고학력자이고 보육교사나 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이 있는 전문가이지만 고용이 불안정하고 초등돌봄교실 운영시 독립적인 운영을 할 수 없고 방과후학교 담당 학교교사의 업무지시를 받아야 하는 등 근무여건이 좋지 못하다. 이뿐 아니라 근무시간이 불안정하고 전문가임에도 직무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처우개선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초등돌봄전담사에 대한 연구는 돌봄전담사의 이직률, 돌봄전담사와 학교교사와의 관계, 돌봄전담사와 학부모와의 관계 등 다차원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6. 초등돌봄교실에 관한 비교연구는 주로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지만, 미국, 독일, 스웨덴 등 외국의 초등돌봄교실 운영현황을 소개하고, 초등돌봄전담사의 교육과정, 프로그램의 비교연구 등으로 연구의 영역을 확장한다면 초등돌봄의 정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다.

7. 초등돌봄교실 평가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초등돌봄교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교사 1인당 25명의 아동, 초등돌봄전담사의 전문성 확보 및 처우, 운영시간의 효율적 운영, 초등돌봄전담사 순환배치, 돌봄전담사 인력풀 구성,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컨설팅 강화, 학년을 고려한 운영프로그램 등 논의가 되어야 할 주제가 많다. 추후 연구들에서 초등돌봄교실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다 다양한 접근이 진행되어야 한다. 초등돌봄교실과 관련된 운영모델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시범학교를 운영하거나 시범운영을 바탕으로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연구도 진행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강화란 (2007). 방과후 교실 프로그램에 대한 아동, 부모의 만족도 및 요구도. 우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강화란・하승민 (2007). 시설 유형에 따른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아동과 부모 간의 만족 및 요구 비교. **아시아아동복지연구. 5**(2), 85-99.

공계자 (2009). 아동의 방과후 생활실태 및 방과후 교실에 대한 수요 조사 연구: 경기도 『꿈나무안심학교』 시범운영 학교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공미화 (2012). 초등돌봄강사의 안전에 대한 지식과 실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교육부 : http://www.moe.go.kr/main.do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6).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구민정 (2005). 방과후 아동지도 교육환경에 대한 아동, 부모, 교사의 만족도, 요구도 및 역할 인식.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순희 (2008). 동적가족화(KFD)를 통한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교실 아동과 일반 아동의 가족 지각 특성 비교.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권영심 (2005).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 실태분석과 활성화를 위한 연구. **육아지원연구. 1**, 125-141.

김경미 (2010). 초등 농산어촌지역 연중돌봄학교와 일반학교 학생들의 교육만족도와 자아존중감 비교-경상남도를 중심으로. 창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관순 (2011). 집단미술치료가 방과후 보육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과 정서표현성에 미치는 효과. 한양대학교 산업경영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귀진 (2014). 초등돌봄교실의 운영실태 분석.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나연 (2012). 방과후 보육 생활에 대한 아동 만족도 조사. 덕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돈정 (2016). 초등학교 돌봄교실 환경에서 로봇기반 프로그래밍 학습효과의 지역 및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 창의성, 문제해결력, 몰입도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동국 (2007). 방과후 교실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저소득층 아동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명자 (2010). 발달적 독서요법이 초등학생의 자아개념 형성에 미치는 영향: 방과후 초등보육교실 저학년 아동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미선 (2010). 초등 보육교실에 대한 담당교사, 보육교사, 학부모의 인식 연구: 홍성군 초등

보육교실 운영 학교를 중심으로.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민정 (2007).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의 운영 실태와 교사 인식에 관한 연구: 경기도 내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민정 (2015). 초등돌봄교실 운영 실태와 업무 담당자의 인식 분석.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선혜 (2015). 초등학교 돌봄서비스의 목적 논의: 공공성과 아동 자기결정의 자유에 근거하여. **한국초등교육, 26**(4), 515-535.

김수동 (2013). 일본의 방과후 아동교실 운영에서 지역교육력 활용 사례의 특징 및 시사점. **열린교육연구, 21**(2), 131-153.

김수동 (2015). 일본의 방과후 아동교실 정책과 운영사례 분석. **한국일본교육학연구, 19**(2), 87-109.

김수동・양애경 (2014). 한국의 방과후 돌봄교실과 일본의 방과후 아동교실 정책의 비교 분석과 한국의 방과후 돌봄교실에 주는 시사점. **한국일본교육학연구, 18**(2), 41-60.

김애연 (2014). 초등학생의 방과후 아동 보육 서비스 이용 현황 및 학부모 만족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애희・최외선・박인전 (2012). 웃음활동을 병행한 집단미술치료가 방과후 보육교실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능력: 사회적 지지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美術治療硏究, 19**(1), 1-24.

김영란・황정임 (2011). 맞벌이 가구 자녀돌봄지원을 위한 지역사회돌봄네트워크 모델 개발: 초등자녀를 중심으로. **젠더리뷰, 23**, 62-72.

김영은 (2009).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교실 아동의 행복감과 자아존중감 및 우정과의 관계 연구. 한국성서대학교 보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일 (2010). 농촌 소규모 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사례 연구. 광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영자 (2015). 학습부진 다문화 초등학생의 학습활동에 관한 연구: 방과후 교실 수업 중심으로.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윤정 (2008). 야간 방과후 아동보육의 실태 및 부모 만족도 조사 연구.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덕 (2010).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강사제 운영과 강사의 학교생활에 관한 연구. 광주교육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배 (2008). 불교 종립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의 현황 및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은석초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정원・이정아・이인경 (2009).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교실 아동의 행복감과 스트레스

및 놀이성간의 관계 연구. **아동학회지, 30**(3), 37-53.

김종선 (2006).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교실 운영의 실제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종호・심영미 (2015). 방과후 돌봄서비스 실태 및 만족도 비교 연구: 의정부시, 고양시, 연천군의 초등돌봄교실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5**(1), 399-419.

김중형・백종수 (2014). 초등 돌봄 교실의 신체활동 적용 실태 및 교사 인식. **한국체육교육학회지, 19**(2), 79-91.

김택균 (2013). 농어촌 연중돌봄학교 육성사업의 공평성 분석.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현미 (2016). 초등 돌봄교사의 노동과정 연구: 주지역 초등돌봄전담사의 고용형태와 노동조건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현미・신지원 (2016). 초등돌봄전담사의 고용형태와 노동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 23**(2), 141-172.

김혜림 (2006). 방과후 아동지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비교: 학부모와 아동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홍원 (2013). 2013 초등 방과후 돌봄 모델학교 시범운영 관계자 워크숍. 한국교육개발원.

남영옥・이경희 (2005). 야간 방과후 아동보육에 관한 탐색적 연구. **방과후아동지도연구, 2**(2), 7-27.

노성향 (2004). 방과후 아동지도 연구 경향 분석. **인간발달연구, 11**(1), 71-86.

노성향 (2007).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보육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노성향 (2012).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취업모의 인식 및 요구. **인간발달연구, 19**(3), 21-40.

노성향・이윤경 (2004). 방과후 정서지능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방과후아동지도연구, 1**(1), 53-71.

대전교육연수원 (2005). (21세기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초등 방과후 교실운영 직무연수. 대전교육연수원

류방란 (2004).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위한 교내 방과후 교실 운영 방안 탐색. **한국교원교육연구, 21**(3), 245-264.

문선화・이태구・이한주 (2016). 무용과 취업 준비생을 위한 진로역량 강화 교육과정 개발: 새로운 취업경로인 초등돌봄전담사 측면에서. **한국무용과학회지, 33**(3), 27-41.

문현자 (2009). 초등학교 방과후보육교실 아동의 삶에 대한 현상학적 이해,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문홍남 (2010).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경남 (2008). 초등학생의 방과후 교실 이용에 따른 사회성과 자아존중감의 차이: 서울 시내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경남 (2014). 초등학생의 방과후교실 이용 여부에 따른 사회성과 자아존중감의 차이 및 영향요인 분석. **디지털융복합연구, 12**(5), 45-56.

박정서 (2014).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이 초등돌봄교실 아동의 정서지능과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효과.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지련 (2009). 방과후 교실의 교사지지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효정 (2005).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교실 운영 실태에 관한 정책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백현순 (2015). 초등 돌봄 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도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부산광역시교육청 (2011). 방과후학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연수회. 부산광역시교육청

서영숙・박진옥・노성향 (2014). 초등돌봄강사의 근무 현황과 요구분석. **방과후아동지도연구, 11**(1), 71-92.

서울문화재단 (2010).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효과성 분석 연구.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팀

서울시교육청 (2016). 초등돌봄교실운영길라잡이.

성혜영 (2016). 기관장의 서번트 리더십과 초등 돌봄 전담사의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영민, 김봉모, 김선혜, 지준호 (2012). 특별기고: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효율적 운영 방안. **동양문화연구, 10**, 291-318.

신나영 (2009). 초등 방과후학교 보육교사의 학교관리자 지원에 대한 인식과 직무만족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대철 (2011). 서울지역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급식 운영관리 실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동석 (2015). 방과후 돌봄서비스 정책의 효과적 집행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신영은 (2010).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교사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윤정 (2010). 토론: 초등학교 보육교사의 전문성. 한국보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신혜경 (2008). 아동의 방과후 보육생활 만족도 척도 개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심정미・채현탁 (2015). 지역아동센터와 초등돌봄교실의 협력에 관한 쟁점 고찰. 한국자치행

정학보

양애경 · 조호제 · 노신민 (2008). 초등 방과후 보육 교실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육아정책연구, 2**(2), 18-37.

양윤이 (2015). 초등돌봄교실의 운영 영역별 지향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 한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양윤이 · 이태연 (2013). 초등돌봄교실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직영과 사회적 기업에 의한 위탁 운영 비교를 중심으로. **열린교육연구, 21**(4), 171-200.

양윤이 · 이태연 (2016). 초등돌봄교실의 운영 영역별 지향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 **아동교육, 25**(3), 211-228.

엄현경 (2007).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교실」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염철현 · 박원표 (2009).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정책 효과 분석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오시영 · 전주성 (2016). 초등돌봄교실 전담사의 전문성 인식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 분석. **한국교육문제연구, 34**(3), 177-197.

오정희 (2010). 집단미술프로그램이 방과후 돌봄교실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왕지영 (2014). 초등돌봄의 대안적 부모역할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과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신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우삼제 (2011).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운영의 활성화 방안 연구: 대전광역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우진경 · 서영숙 (2015). 초등 교사의 방과후 돌봄 교사와의 의사소통과 협력에 대한 의미. **아동학회지, 36**(2), 95-110.

우희영 (2012). 초등 돌봄 교실 아동의 방과후 보육생활 만족도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희옥 (2002). 방과후 아동지도에 대한 방과후 아동지도사의 인식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기영 · 유희옥 (2004). 방과후 아동지도에 대한 방과후 아동지도사의 인식 연구. 방과후아동지도연구

윤노아 · 김돈정 · 박인우 · 엄상현 · 임 걸 (2016). 초등학교 돌봄교실 기반 '스마트로봇 활용 프로그래밍 교육 사례연구. **교육문화연구, 22**(5), 99-125.

윤정한 (2013). 방과후 아동 돌봄교실 지도자료집. 해피앤북스

윤희상 · 한영란 (2008). 취약계층 초등학교 고학년 방과후 교실 아동의 건강증진행위 실천의 영향요인 분석.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9**(2), 167-176

이경원 (2014). 초등돌봄교실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경희 (2004). 야간 방과후 아동보육의 실태 및 부모 만족도에 관한 연구. 韓南大學校 社會文化科學大學院 석사학위논문

이 명 (2009). 방과후 아동지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지원학회지, 4**(1), 191-207.

이문숙・이소은 (2007). 방과후교실 이용에 따른 아동의 기초학습능력. **아동교육, 16**(1), 79-88.

이성태 (2007). 방과후학교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성한 (2012). 일본 방과후 정책에 관한 고찰: 방과후 아동교실, 방과후 아동클럽, 방과후 아동플랜을 중심으로. **한국일본교육학연구, 16**(2), 1-20.

이수민 (2006).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보육교실 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백석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숙경 (2016). 청소년 준비기 아동 대상 감정코칭 실행연구: 초등돌봄교실 중심으로.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숙희 (2012). 취업모의 초등돌봄교실 서비스 이용 만족도 조사. 신라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예훈・권민정 (2015). 초등돌봄교실 내 체육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및 개선 방안 탐색. **한국초등체육학회지, 21**(1), 1-16.

이예훈・정민영・전선혜 (2015). 초등돌봄교실 내 체육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취업모의 인식 및 요구사항 탐색. **한국여성체육학회지, 29**(2), 313-327.

이 옥・노성향 (1996). **방과후 아동보육론.** 서울: 창지사.

이옥희 (2006). 초등학교 아동의 방과후 보육 실태 및 개선 방안: 서울특별시 지역 간 비교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용선 (2016). 청소년기 이전 아동들의 초등돌봄교실 참여 경험 연구: 사회관계와 문제행동을 중심으로.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유경 (2013). 초등학교 돌봄교실 예산 운영의 효율성 분석. **교육종합연구, 11**(1), 177-204.

이지영 (2006). 인천 방과후 보육 정책 현황 및 평가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지현・김유정・이정아 (2006). 동화를 이용한 음운인식활동이 저소득층 초등 방과후 교실 1, 2 학년 아동의 읽기, 학습동기 및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7**(5), 123-141.

이혜진 (2011).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의 운영실태 분석.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회자 (2007). 도시와 농촌 지역 간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만족도의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양미 (2010). 경기도 '종일 초등 보육(edu-care)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발전방안. 아동보육연구

임현성 (2007).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평가준거 및 도구 개발. 동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명림 (2015). 초등돌봄교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학교중심 실행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장명림 (2015). 초등돌봄교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학교중심 실행 방안 정책토론회. 한국교육개발원

장향금 (2011).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지원사업의 학생만족도 및 중요도에 관한 연구: 임자지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재해덕 (2007).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과 개선방안.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영희 (2007).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의 기능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은영 (2010).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방과후학교의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 방안.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인순 (2013).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에 관한 연구.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명숙・오정희 (2010). 집단미술 프로그램이 방과후 돌봄교실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간발달학회 학술대회지, 2010**(2), 103-105.

정미경 (2016). 초등학교 돌봄교실 전담교사의 직무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소연 (2008).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교사의 인식.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송이 (2008).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교실 실태 조사와 활성화 방안 연구: 천안시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예리・이종은 (2008). 방과후 교실 프로그램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17**(3), 231-239.

정준호 (2015). 가족돌봄과 방과후돌봄이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또래애착과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정철희 (2011).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활동에 대한 초등학생의 인식.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수영 (2010). 성공적인 방과후학교 운영 특성 분석.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윤숙 (2013). 방과후학교 초등돌봄전담강사의 직무만족도 요인 분석.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은경 (2014). 방과후서비스 간 협력체계에 대한 초등돌봄 입장. 한국방과후아동지도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조지연 (2007). 학교도서관 기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진일・김홍원・최형주・손종렬・신화주・안성현・정유진 (2015). 초등돌봄교실의 환경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교육개발원
조현숙 (2009).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실태와 강사들의 인식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지우배・오현주・서지훈・이혜원・손종렬 (2015). 수도권내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실내공기질 조사. 한국대기환경학회 학술대회논문집
차진미 (2011). 자기관리기술향상 집단상담이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아동의 자기결정능력과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명희 (2004). 방과후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전주시를 중심으로. 한일장신대학교 기독교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성자 (2007).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 방안에 대한 학생・교사・학부모의 인식 조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영주 (2004). 초등학교「방과후 보육교실」운영의 활성화 방안.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진아 (2016). 초등돌봄교실 자체평가지표 탐색.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혜경 (2012). 초등돌봄교실의 운영실태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하소영 (2012).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에 대한 초등교사의 인식.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육개발원 (2004).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교실 운영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2015). 초등돌봄교실의 환경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www.kihasa.re.kr

한승희 (2015).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이 초등돌봄교실 아동의 공격성과 사회적유능감에 미치는 효과.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허 현 (2016).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황새롬 (2016).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에서의 음악활용 조사: 대전지역 오후돌봄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은진 (2016). 초등 돌봄 교실 아동대상 채소·과일 섭취 관련 영양교육 실시 및 효과평가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BSTRACT

An Analysis on Research Trends on After-School care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

Rho, Sung-Hya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research trends in After-School care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 in the elementary schools. This study reviewed published journals and articles from 2004 to 2016.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The greatest number of research themes was studies on current status and recommendations. Studies on current status and recommendations of After-School care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 in the elementary schools have been conducted, but program on concrete case abd comparative studies on program have been so scarce that we are in need of them. Effect of program on child have been studied in the fields of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However, other regions of children decelopment are necessary. Study of After-School care workers' job satisfaction have been conducted, but it should provide them more research. We need more research about teaching method, program's diversification, ways of quality enhancement, and improvement of teacher'professionalism. This paper also provides a future direction of After-School care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 in the elementary schools.

Key words : After-School care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 research trends